



Social

* 현대자동차가 UNDP(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와 함께 진행 중인 '포 투모로우(for Tomorrow)' 프로젝트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사회를 위한 올바른 변화를 함께 고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로 인해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1	창의적 조직문화
3.2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3.3	지속가능한 공급망
3.4	고객경험 혁신
3.5	공유가치 창출

창의적 조직문화

현대자동차는 인재 채용, 육성, 평가, 보상, 복리후생, 은퇴까지 임직원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최고 수준의 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 인력운영 및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시 채용 및 직원추천 제도를 통해 우수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목표에 기반한 성과평가 및 공정한 보상, 임직원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 운영,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분위기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성 증진 활동 등 창의와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점수를 경영층의 KPI에도 5%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사관리

인재채용 및 운영

인재채용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공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환경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채용을 전면 도입하였고, 현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무중심의 우수인재를 적시에 선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현업부서가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자격·기술 등 전문성을 정의하고, 선발기준 수립 및 의사결정도 각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과제 발표, 그룹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상시 채용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현업부서의 채용 과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별로 '채용 지원전담 조직(Recruit Support Center)'을 운영하여 원활한 채용을 위해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담당 HR 부서와 실무를 수행하는 현업부서 등 채용 관련 의사결정자가 선발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지원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 이후에는 정기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채용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 공정성 및 신뢰성 이슈가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자 선발의 공정성을 자가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여 채용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지원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내부 채용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하여 지원자의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 기반 분석하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타겟소싱 제도 현대자동차는 미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신사업·신기술 분야 인재의 능동적 확보를 위하여 2022년 하반기 타겟소싱 제도를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 표시선의 선제적 제안을 추진하며 인재 확보와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 In-house Recruiting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싱 전담 조직(Talent Sourcing Center)을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채널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등 신사업 전략과 연계된 선제적 인재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종 Tech 컨퍼런스 주최 및 참여를 통해 외부 우수인재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산학 연계 홍보를 추진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Tech 기업으로서 채용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채용 홍보 온라인 채용 홍보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및 직무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지원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채용설명회를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하는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문화가 익숙한 지원자들에게 상담·소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OVID-19 확산으로 비대면 채용 프로세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채용 홍보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또한 당사 전용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를 홍보하여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부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등 현대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

전략적 인력계획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포트폴리오 강화, 미래전략기술 확보 등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과 더불어, 해당 전략의 실행 및 달성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확보하고자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적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래 사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선제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경력경로 설계 지원, 리더와의 면담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인재의 주도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력계획 절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인력 확보 및 상대적 경쟁력 분석을 위해 다양한 인재분석 방법 도입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인력의 핵심역량분석, 채용과정의 활용, 인력계획 Portfolio 및 채용 전략 등에 인재분석 내용 활용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부서 간 협업도 증진을 도모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잠재적 조직 이탈 사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 수행

인재 분석

임직원 역량 분석 	성과목표 이행 및 달성 점검 (Performance Mea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s)에 따른 직무수행 및 역량개발 여부 상시 점검 성과목표 초과 달성, 동일 직무 및 직급 대비 우수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 등 우수인재 선발
	역량격차 파악 (Skill Gaps Identify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급 및 직무별 갖추어야 할 역량 요소 정의, 개별 임직원의 역량 수준 측정 및 관리 각 요소별 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임직원 파악
내부 조직 분석 	조직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 간 협업 빈도 및 시간, 협업 과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등을 통한 부서 간 관계 파악 협업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된 부서 별도 선발 및 관리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Employee Ret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대상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별 임직원의 불만·기대사항 파악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선, 적극적 소통을 통한 우수인재 이탈 방지
외부 환경 분석 	시장 경쟁상황 분석 (Competitive Intel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산업 경쟁상황, 잠재적 경쟁기업 등장, 공급망 불확실성 등 시장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한 역량 및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적시 확보하고자 상시 채용 제도 운영
	외부 우수인재 식별 (Recruiting & Hi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홍보 및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 운영을 통한 우수 인재의 관심 형성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 석·박사 대상의 채용 설명회 별도 개최

창의적 조직문화

인재육성 및 전문역량 확보

신성장제도 운영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체제로의 전환,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자율주행·PBV·AAM·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성장가이드와 역량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력개발 및 역량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임직원이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식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시학습 및 지식나눔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경험치)는 성장 플랫폼 및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됨과 동시에, 평가승진·경력개발 등 HR 프로세스에 반영됩니다. 신성장제도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경험·지식이 개인을 넘어 조직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커리어 개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감각을 갖추고, 담당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재를 전 세계 50여 개 해외 거점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글로벌 커리어 개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점에서 직접 연구생산판매 등 글로벌 현장조직을 리드하고, 미래사업 계획 추진 및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은 임직원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제도



러닝라운지(Learning Lounge) 현대자동차는 시장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자기주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지원 시스템인 ‘러닝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러닝라운지를 통해 미래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성장계획에 필요한 학습 솔루션을 추천받아 자율적인 상시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러닝라운지는 임직원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Game Changer로 변모할 수 있도록, 약 1만 2천 건의 학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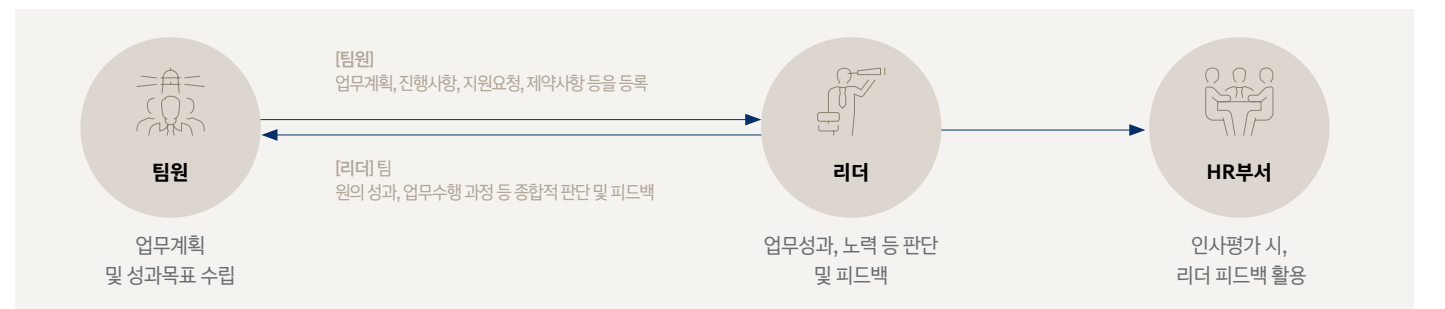
러닝랩(Learning Lab) ‘러닝랩’은 임직원 간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공통된 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습득하는 연구회입니다. 학습 내용·시간·장소·참여자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성장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직원은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보다 깊게 학습하고 싶은 모임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 및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위치 측위 고도화 기술 탐색 및 실험, 전동화 모빌리티 트렌드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자동차 동작 이해 및 모니터링 구현 등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공모 및 전환배치 현업부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내의 우수인력 중심으로 적시에 충원이 가능하고 임직원에게는 새로운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내공모 및 전환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은 경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희망하는 부서와 직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와 인터뷰 등 평가 절차를 통해 전환배치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정착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이 관리자로서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제도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성과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MBO(Management By Objectives) 기반의 성과(KPI) 평가, 360° 다면평가, 직원 간 상대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O 기반의 성과평가는 일반직·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 모든 직원도 업무를 기반으로 하거나, 사업장별 목표에 따른 개인 목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모든 임직원은 MBO 기반의 성과평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임직원의 평가를 넘어 팀장 평가를 통한 팀 단위 성과평가와 본부 단위의 KPI 설정 등을 통해 다양한 레벨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60° 다면평가 현대자동차의 다면평가 제도는 리더 대상의 ‘리더십 다면평가 (Leadership Surround View)’와 직원 대상의 ‘동료 평가(Peer Surround View)’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임원, 일반직, 연구직 기준 95.8%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최고 등급에 대한 제한을 두어 동일 직급 내 직원 간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제도 하에 상대화 요소를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시 피드백 (View-T) 제도



상시 피드백 (View-T) 리더와 팀원이 자유롭게 업무수행, 경력개발, 역량강화, 성과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시 피드백(View-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업무계획, 진행사항, 지원요청, 제약사항 등을 등록하면 리더는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팀원의 노력, 업무수행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 및 피드백합니다. 상시 피드백 제도를 통해 리더와 팀원 간 업무성과 공유 및 피드백 사항은 인사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과보상 체계 현대자동차는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변동급(성과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임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인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상폭은 대내외 경제여건, 시장상황,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조정합니다. 기본급 설정 및 그 인상에 있어 임직원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된 정확한 임금(현지 법률의 최저임금 이상)을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반 보상 모든 임직원의 변동급여는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됩니다. 성과평가 기반의 변동급 외에도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초과이익을 모든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등 조직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업무몰입도 제고, 사업목적과 개인의 가치를 일치시키고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지급한 우리사주는 1,020,552주이며,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지급한 총 2,857,635주(지분율 1.30%)입니다. 당사 전체 인력의 약 90%인 정규 직원은 모두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 매입제도의 대상입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우수 전문 기관과 함께 '파견형 공동연구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R&D 미래 핵심기술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완성차 및 선행기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전파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내재화와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고객 중심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경험 관점의 판매, 고객응대, 서비스 부문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구성하여 상품지식 강화(전동차, 고급차), 상담 스킬 강화(CSR, CS) 교육을 통해 고객 접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승용/RV 전 부문에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승용 부문 29년 연속, RV 부문 19년 연속 수상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성과

신기술 개발	현업문제 해결	특허 및 논문	연구성과 전파	참여율
43건	25건	52건	42건	65%

2022년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위: 건, 명)

국내기준	직영	대리점	합계
개최 횟수	33	20	53
참여자 수	11,610	12,252	23,862
참여율	100%	100%	100%

2022년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단위: 개)

	인권	안전	환경	품질	합계
운영 교육 개수	23	948	772	671	2,414

* 러닝라운드 내 키워드 검색 시 조회되는 교육 개수

리더십 및 직무역량 교육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영철학 구현에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리더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고 리더 대상 고객 중심 마인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 체계, 구성원의 혁신적 마인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 등 다양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등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내재화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해 인권·안전·환경·품질 분야의 ESG 교육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업무별 담당자 특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마인드셋 구축과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리더십 및 직무역량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과정 수 (온·오프라인)	학습시간 비중
리더십	995	1.4%
직무	15,638	84.2%
조직문화	230	0.6%
온보딩	144	7.8%
기타	140	6.0%
합계	17,141	100%

2022년 러닝라운드-러닝랩 제공 교육

(단위: 개)

	제공 교육, 강의 및 러닝랩
회사 관련	경영/전략 (329), 상품/자동차 기술 (956), 개발 프로세스 (28), 조직 및 기업문화 (464)
리더십 관련	상시학습 (1,007), 정규학습 (557)
직무 관련	품질/생산 관련 (1,720), 연구개발 (2,076), 전략기술/ICT (524), 사업 관련 (1,538)
법정교육	준법/보안 (126), 화재/안전 등 기타 (463)
사외교육	오프라인 강의 (462), 이러닝 등 온라인 (264)

HMG 개발자 컨퍼런스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s)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사이언스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 강화와 내재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개발자 역량 강화를 위해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현대자동차그룹 개발자와 외부 전문가들 간 모빌리티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임원진과 개발자 60여 명이 SDV 체제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자바디 등 50여 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며 외부 참가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H-모빌리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현대자동차 현업 임직원이 직무 중심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매치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정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현재까지 약 5,000여 명의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로봇틱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해당 기술 직무의 인증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우수학습자에게는 연구개발본부 서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채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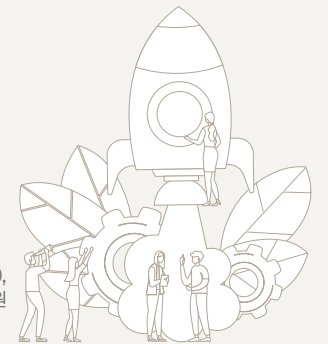


사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현대자동차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ZER01NE을 통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사외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ZER01NE ACCELERATOR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현업팀과 100여 건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투자 검토, 상품화 개발, 전시·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TIPS 프로그램¹⁾ 운영사로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31개 기술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부 현업팀과의 연계, 자본투자 및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과의 공동 성장을 지향합니다.

사내 스타트업 지원

현대자동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임직원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신사업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내 스타트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벤처플라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원 분야를 자동차를 넘어 유망 신사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스타트업 제도를 통해 미래 신기술 국산화 및 양산 적용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내 스타트업 76개 팀을 선발 및 육성하였고, 30개 기업이 분사하였습니다. 분사한 기업 중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 '오토앤'이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분사 후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분사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¹⁾ TIPS(Tech Incubation Program for Startu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 정부 R&D 지원 매칭 방식 프로그램

창의적 조직문화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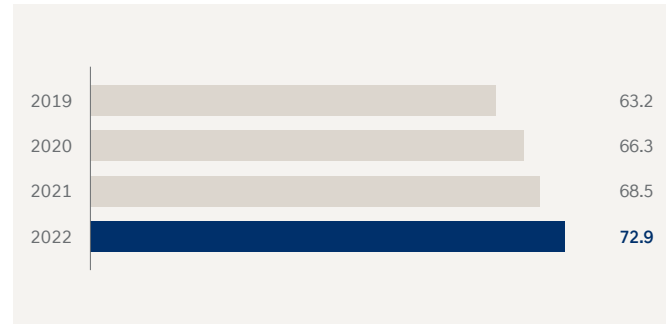
조직문화 진단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높은 몰입도가 기업의 성과와 인재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Biz-People-Work-리더십-조직효과성 5개 영역과 전사차원 제도-인프라 2개 영역 67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등 전체 임직원의 72.6%가 조직문화 진단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부별 변화혁신 가속화 리더를 통한 Top-down 방식과 구성원 참여를 통한 Bottom-up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본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층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의 방향성을 토론하고, 각 본부의 리더는 본부별 선정된 변화혁신 담당자와 함께 일하는 문화 변화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혁신 담당자는 조직문화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구성원들의 VoE (Voice of Employee)에 기반한 솔루션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 아이디어 공모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 '현대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현되기도 합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단위: 점)



2022년에는 총 5,713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47건에 대하여 실행 검토 및 적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신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익명 소통채널 '현대나무숲' 등을 운영하여 구성원이 수평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 구성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고, 장소가 아닌 일에 몰입하여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모바일 PC와 사외에서 접속이 가능한 VPN 환경 구축, 온라인 화상회의 IT Tool 사용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콰(CoC, Code of Conduct) 현대자동차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Kill the Company' 설문을 통해 역으로 회사를 살리는(Save)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일하는 방식 '콰(CoC, Code of Conduct)'를 개발하였습니다.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긍정 마인드, 책임감과 집요함, 새로운 도전 및 시도 등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다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업무 몰입을 위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거점 오피스 'H-Work Station' 현대자동차는 서울-경기권에 거점오피스 'H-Work Station' 8개 사이트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페형 좌석, 독립형 좌석,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임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H-Work Station을 통해 사무실 외에도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협의체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변화대응TFT 및 고용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 변화에 대한 사전 노사 공감대 형성 및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성숙된 노사관계 안정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 신뢰도 향상 및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4년간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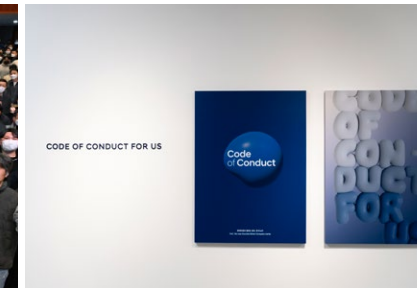
2022년에는 총 6명의 전문가로 4기 고용안전위원회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전화화, 미래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 내 변화가 가속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기 자문위는 직원들의 고용문제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사 간 의견 대립 시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체코, 브라질, 인도 법인입니다. 중국지역 해외법인은 노동자 대표조직인 공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현지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 등의 파악을 위해 정기적 혹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 간 합리적이면서도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법인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사 차원에서는 격년 단위로 해외생산법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자부심 제고를 위한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해외법인은 개별적으로 직원-경영진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고충 상담실 운영, 현장 순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과 요청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타운홀 미팅(신년회)



현대자동차 일하는 방식 콰(CoC)



H-Work Station

창의적 조직문화

임직원 다양성 증진 📄 [현대자동차 다양성 및 포용 정책](#)
다양성 정책 수립 현대자동차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현대자동차의 다양성 및 포용성과 관리 요소를 다룬 '현대자동차 다양성 및 포용 정책' 문서를 제정, 공개하였습니다.

다양성 기본원칙

현대자동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연령, 개인의 성 정체성, 정치적·종교적 신념의 차이 또는 사회적 신분의 취약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및 복지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1조. 성별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2조. 인종, 국적 및 문화적 배경
 인종, 국적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3조. 연령
 연령과 무관하게 서로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한다.

제4조. 장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질병의 유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 보호대상자
 채용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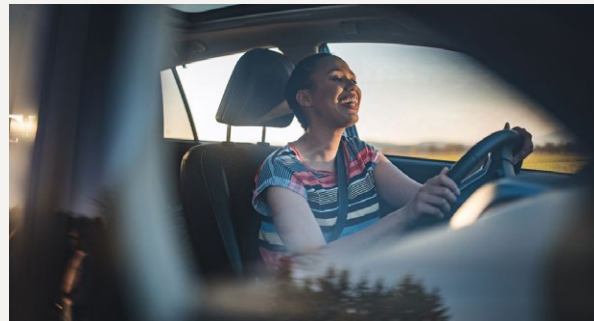
주요 다양성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해외법인장 온보딩 과정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구성원이 함께하는 조직에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및 일하는 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장 역할 논의
주재원 부임 과정	부임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 이해를 위해 GlobeSmart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 교육 실시
Cross Cultural Seminar	외국인 임원 대상 이문화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러닝랩	(전 임직원 대상) 관심사업부 형태가 비슷한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발적 학습,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조직 시너지 제고
리멤버스 데이	(연구개발본부) 신입 파트장, 소속 팀장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 기반의 긍정적 조직문화 교육
커넥핏	(국내사업본부) 최초 순환근무 예정자인 저연차 직원과 경험자인 선배 직원 연결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커리어 멘토링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전 세계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로를 누비는 여성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플레이리스트("Who drives the world?") 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리조(Lizzo),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 빅토리아 머넷(Victoria Monét) 등 다양한 전 세계 여성 뮤지션들의 곡들을 수록하여,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여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 하였습니다.



'Who drives the World?' 플레이리스트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워크샵,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그룹 간의 소통과 팀워크 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조직 내 문화 다양성 인식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mployee Resource Groups (ERG) 현대자동차는 공통적인 다양성 배경을 지닌 임직원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선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별, 문화, 연령, 출신지역을 비롯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임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직원 리소스 그룹(ER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 또는 팀 차원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기반 멘토링, 지역사회 참여 등 외부 연계활동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ERG 활동

명칭	대상	주요활동
Women @ Hyundai	여성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임직원, 고객, 협력사 임직원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포용적 환경 조성 여성 임직원 관점에서 커리어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지원 활동
Hyundai @ Soul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 현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법 논의 현대 경영진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HANA (Hyundai Asian Network Alliance)	아시아계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문화 특성 및 관점을 활용한 전략 개발, 기술 및 네트워크 활용 기회 고민 현대 기업 홍보 및 지역사회 행사 지원
Amigos Unidos	히스패닉/라틴계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틴계 커뮤니티의 문화적 지능을 활용한 경영 혁신 아이디어 제안 라틴계 임직원 관점에서 현대 미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Young Leaders	밀레니얼 세대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레니얼 세대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해결책, 개선점 고민 소속 임직원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자기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Equality	LGBTQ+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LGBTQ+) 임직원 대상 교육, 경력 개발, 네트워킹 및 직장 협업 기회 제공 LGBTQ+ 커뮤니티 내 현대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Hyundai CARES	장애인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직장생활 개선 및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있는 임직원, 노화로 인한 장애가 있는 중장년 임직원 등 지원
Stars & Stripes	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자동차 직원, 배우자, 가족 및 미군 참전용사 지지자들이 모이는 포럼 운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 제공

창의적 조직문화

인권경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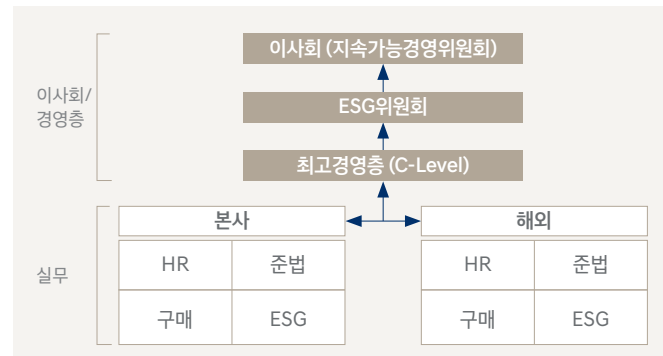
인권경영 기반 조성

인권경영 거버넌스 인권헌장 개정 및 확산전파, 인권 리스크 평가 계획·실행 결과, 리스크 저감 및 완화 조치, 저감 및 완화 조치의 효과성 등을 경영진이 참여하는 ESG위원회와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인권경영 이행은 ESG, HR, 준법, 구매 관련 부서가 함께 협업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권헌장

인권헌장 현대자동차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에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자격, 차별의 방지 존중에 대한 약속 등 인권경영 내재화 및 확산을 위한 주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국내외 생산·판매 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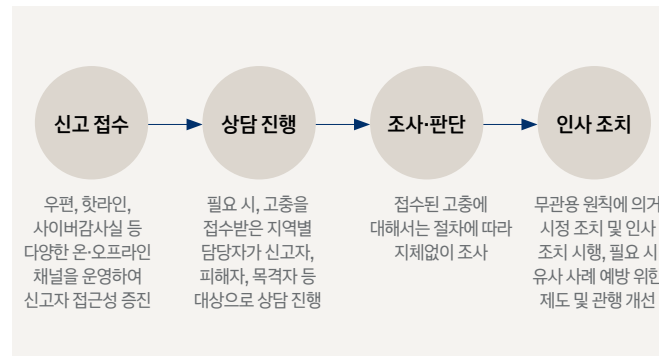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현대자동차는 직장 내 차별·괴롭힘·성희롱 관련 이슈 및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자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에 따라, 상호 간의 다름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거부하는 행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처리 현대자동차는 차별, 괴롭힘, 성희롱,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시안을 접수·처리·조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은 우편, 핫라인, 사이버감사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여 제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충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 비밀을 보장하며, 고충을 제보하였다는 사유로 보복·신분노출·인사상 불이익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진행하며, 필요 시 고충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제도나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별, 괴롭힘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검토합니다.

현대자동차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본원칙 31' 등을 참고하여, 채널, 접수, 처리, 조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고충처리 절차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고충처리 절차



인권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인권헌장 준수와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인권 관련 교육과정은 총 23개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인권경영 개념, 인권침해 사례, 인권 관련 법제화 및 산업 동향 등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실사', '분쟁광물 관리 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인권 리스크 관리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근로시간 관리 등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인권경영 기본원칙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협력사 ESG 설명회에는 국내 협력사 100%인 총 303개의 협력사 담당자가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총 1,123명의 협력사 담당자가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인권 관련 교육 실시 결과

ESG 마인드셋 교육 ¹⁾ (국내)	교육 대상자 수	약 73,000명
	교육 참여율	약 90.1%
협력사 ESG 설명회	참여 협력사 비율	국내 100%
협력사 온라인 교육	참여 협력사 수	410개사 (6,882명)

¹⁾ ESG 마인드셋 교육: 인권, 윤리, 안전, 환경, ESG 일반 등 5개 영역으로 구성. 인권영역별 개념 및 중요성, 우수사례 등 교육



ESG 마인드셋 교육

- 취지: ESG에 대한 임직원 기본 이해 향상 및 인식 제고
- 교육 대상: 총 인원 약 73,000명 (일반, 연구, 법무, 기술, 정비, 영업직 등 포함)
- 내용: ESG 영역별 개념 및 중요성, 우수사례 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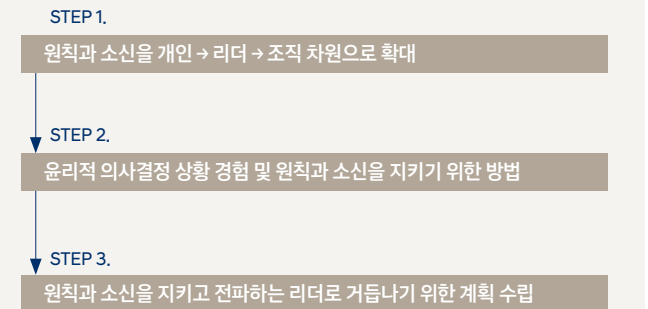
교육 Roadmap



윤리경영 교육

- 취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업무 현장에서 리더의 윤리적 민감성 기반으로 개선 추구하도록 팀장 역할 향상
- 교육 대상: 국내 팀장 전원

내용



*향후 해외주재원과 법인장 대상으로 해외 근무에 특화된 윤리경영 교육과정 개발 예정 (2023년 하반기 실시 목표)

창의적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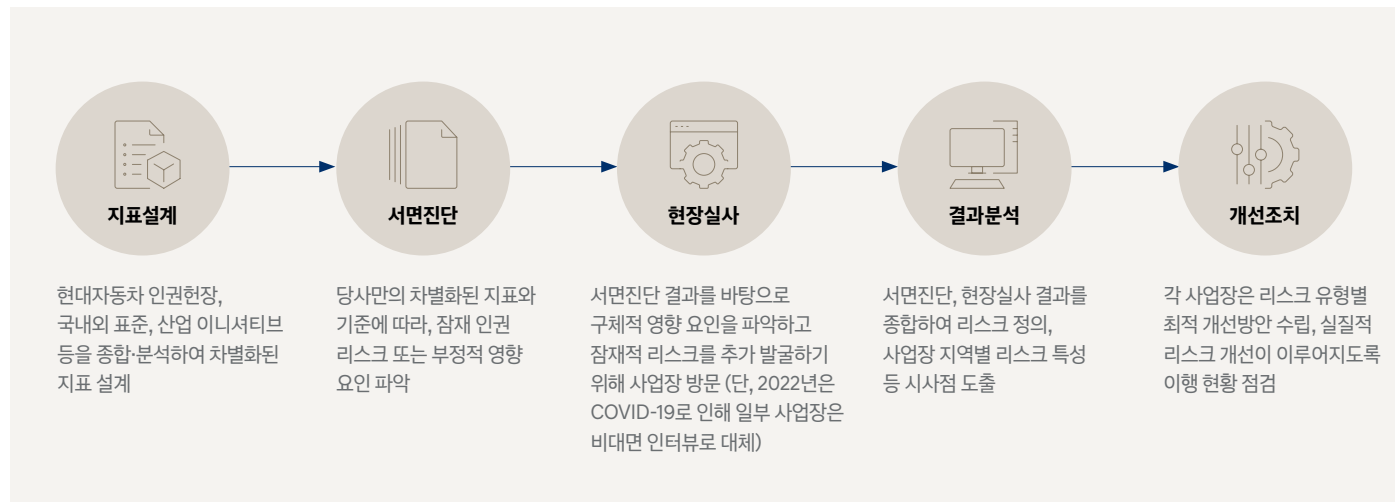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 본사, 연구소,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등 국내 사업장, 유럽, 북미, 중남미, 인도, 중국 등 해외 권역본부 및 산하법인, 연구소 등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90% 이상을 포괄합니다. 향후,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정교화·고도화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출고센터 및 자회사 등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100% 커버리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임직원 구성 현황, 사업운영 방식 및 지역, 생산·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력, 공급망으로부터 조달 받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직원,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협력사 근로자, 지역주민을 주요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설계 현대자동차는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와 평가 대상에 잠재되어 있거나 발생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인권현장을 기반으로 국내외 인권경영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의 매뉴얼, 동종사 Best Practice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과거 인권 관련 접수·처리된 고충유형 발굴, 임직원으로부터 의견 청취, 제3자 전문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당사만의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를 수행하기 전, 국가별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국내외 기관 및 언론의 조사자료, 산업 이니셔티브의 문헌자료, 사업장 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청취 등 내·외부 환경을 조사하여 임직원,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협력사 근로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는 사업장별, 계층별 진단·실사 지표를 차등하여 적용하거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기준을 보완·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 협력사의 근로환경, 근로조건, 안전보건, 지역사회, 분쟁광물 관련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광물 등 원자재 조달 공급망에서는 아동과 여성 근로자의 인권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현대자동차는 당사만의 차별화된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와 기준에 따라, 설문지 형식으로 서면진단하여 다양한 근로자 계층에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이 서면진단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 기준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효과적인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을 통해 파악된 잠재 인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63개 지표에 따라 서면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권 리스크 평가결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장 내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대처하기 위해 지표를 유지·확대·효율화 할 것입니다.

인권 리스크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서면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 지역, 운영형태, 근로자 구성, 지역사회 영향 등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잠재 인권 리스크가 확인되거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현장실사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장 실사는 HR·안전·조직문화 등을 담당하는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노무/법률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문서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수행하며, 안전장치·환경설비 등의 근로환경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소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여 더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 리스크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

인권 이슈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임직원	여성	아동	이주/계약 노동자	협력 업체	지역 사회
근로환경 (감정노동, 차별, 결사의 자유 등)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근로조건 (시간, 급여, 아동/강제노동 등)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안전보건 (사업장 안전시설, 보호구 착용 등)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사업영향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사회적 영향)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분쟁광물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인권 리스크 평가(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단위: %)

구분		결과
사업장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 ¹⁾	90.4
	리스크 있는 사업장 비율	8.3
	개선조치 및 개선활동 이행 비율	50
협력사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	100
	리스크 발견 사업장 비율	2
	개선 조치 적용한 비율	100

¹⁾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 =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한 사업장 내 임직원 수 / 전체 임직원 수 %

창의적 조직문화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국내의 사업장의 지표 준수율은 85%를 상회하였으며, 한국 96.3%, 유럽 98.8%, 북미 98%, 중남미 100%, 중국 93.1%, 인도 93.7%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역은 소수자 보호 등 차별금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문제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신고하거나 대응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로 제작·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중국 지역은 국가 단위 법·제도, 사회적 관습,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권경영 이행 과도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단·실사 영역별로는 정책 및 시스템,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강제노동, 고객 인권 영역에서 리스크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는 국내 사업장 및 합작회사(Beijing Hyundai Motor Company)와 북미·중남미·유럽·인도·중국 지역의 16개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를 진단하였습니다. 지역별 인권경영 추진 현황과 잠재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인권 리스크 진단 결과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영역별 결과 분석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 정책·시스템 항목에서 국내를 포함한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책·시스템 항목의 경우, 실제적인 리스크보다는 인권현장에 대한 임직원 안내 및 인권 관련 교육 등 인권 경영 내재화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항목에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식별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식별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인권현장 배포 및 교육, 리스크 요소들에 대한 완화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개선조치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각 사업장은 개선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추진시기, 추진방식,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이 개선과제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실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규정·제도 개선 또는 대규모의 투자 및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사 단위 과제로 상정하여 중장기 관점의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고도화 계획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 리스크가 사업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사업운영 영향력이 높은 실제 이슈를 발굴 및 대처하기 위해 진단·실사 지표를 고도화할 것이며, 진단·실사를 통해 확인된 인권 리스크가 확산·전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CEO 및 인권 유관부문에 인권 진단·실사, 고충 처리 관련 내용을 성과평가지표(KPIs)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장별 담당자 대상으로 진단·실사 절차 및 지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진단·실사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리스크 조치사항

‘인권현장’,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강화 및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인권현장’ 배포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제정 및 배포
급여명세서 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급여, 수당, 공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급여명세서를 영문화 하여 제공

지역별 리스크 조치사항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차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접수 채널(인사, 감사부)을 운영하며, 접수 시 즉각 조사 및 징계 조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내 탁아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 적극 운영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구축 중 (여성 심야 통근 버스, 성희롱 사건 외부 조사 인력 참여 등)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신고 및 처리하기 위한 오프라인 고충처리 상담함 운영 개인 심리 상담 및 조직 진단을 위한 EAP 시행 및 도입 검토 중



글로벌 투자자 소통

2022년 8월 미국 보스턴·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에딘버러, 싱가포르,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NDR을 실시하여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산업 안전보건 강화, 인권 리스크 평가 등 주요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인권 리스크 평가, 인권영향 완화 및 개선 계획, EU의 기업실사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질의요청 받았으며, 현대자동차의 현재 활동과 성과,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은 인권경영 활동 개발 및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성 향상 기반 조성 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ESG NDR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력사 아동노동 조치 및 완화활동

현대자동차는 2022년 앨라배마 미국생산업인과 협력관계에 있는 두 회사(SL Alabama, SMART Alabama)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북미 생산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진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SL Alabama, SMART Alabama는 제3의 고용 중개업체가 채용 지원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인증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고용 중개업체와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SL Alabama는 관련 노동 법률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특별 감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SMART Alabama와의 지분관계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인터뷰, 현장점검 등의 방식으로 북미 지역 29개 1차 협력사를 조사하였으며, 미국 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 관련 규정 준수 교육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부당 고용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무관용 원칙,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원 확인 방법,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에게 근로자 대상의 익명 고충상담 핫라인을 개설하도록 하고, 제3의 고용 중개업체를 통한 고용을 금지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사회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 및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 경영진에게 부당고용 이슈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ESG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보건 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과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목표 달성 및 이행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와 소통 기반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사업장

국내외 전체 생산법인

100%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

안전보건 체계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현대자동차 이사회와 경영진은 최소 분기 1회 안전보건 체계 운영 및 목표 대비 이행 현황, 실행계획 및 주요성과를 점검·감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대표이사 겸, 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였으며, 전사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총괄 아래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전사 또는 사업장 단위별 관리자와 직원이 참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공유·논의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부상·질병·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며, 사후조사 절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사업장 담당자, 공정 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련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안전보건 관리 성과목표(KPIs)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이행 현황에 따라 성과를 평가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국내외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 수행, 안전보건 활동 이행실적 평가, 활동 분석 기반 개선조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법·규제, 시장 현황,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제3자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안전리더 세미나 실시 결과






일시	세미나 내용	이수자 수
상반기	• 중대재해처벌법 이슈 및 안전동향 • 우수 개선사례 및 선진 안전기술 공유	48명
하반기	• 경영책임자(CSO) 안전방침 전파 • 나와 내 동료들을 위한 안전 리더십	63명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2022년 4월, 현대자동차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를 포함한 노사 대표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임직원의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노사 공동 선언문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중대재해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점검 등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지속적인 안전 분야 투자 확대 및 체계화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험요소 개선 및 안전의식 향상 활동 추진,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동 TFT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리더 세미나 현대자동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외 동향을 확인하고 안전 리더십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리더 세미나(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참여하여 안전방침을 전파하고,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내외 안전 관련 담당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장 안전의식 개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사업장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안전비전전략 로드맵 마련 현대자동차는 2022년 12월,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자문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의 안전경영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글로벌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안전경영체계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전비전전략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비전전략 로드맵에는 현대자동차가 안전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연도별 추진전략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기업 핵심가치와 안전문화의 연계성 강화, 안전교육 고도화, 안전 소통 및 리더십 향상, 노사 협력의 공동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 심층진단을 기반으로 마련한 안전비전전략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중장기 실행방안을 면밀하게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산업안전 분야별 심화진단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현장 안전 개선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5대 안전 핵심요소(조직·인력, 예산, 교육, 노사관계, 안전문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비전전략 방향

안전문화 정착		• 안전 최우선 핵심가치 실현, 선진기업으로서 공정한 안전문화(Just Safety Culture)로 변모 등 현대자동차 고유의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 고도화		• 법·규제 요구수준 이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글로벌 BEST 도약		• 글로벌 안전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 Headquarter 조직 중심의 미래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제도(Safety Career) 등 선진사례 시범 도입 적극 추진
현장중심 위험성 평가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해 자율규제(Self-regulation) 정착 및 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고도화,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노사협력 강화		• 노사의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Safety Merit System) 도입 및 노사협력 강화
공생협력		•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우수협력업체 발굴제도 등) 강화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안전보건 문화 확산

산업재해 선행지표 (H-LWC) 관리 현대자동차는 기존 재해를 중심의 후행지표 관리에서 선행지표 'H-LWC(Hyundai-Lost Workday Case)'를 도입하여, 사고유형을 사전에 분석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행지표는 안전보건 의식 및 문화 수준, 설비 건전성, 안전운영범위 초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활동 실행력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정과 행위를 측정합니다. 선행지표 관리를 통해 사고율은 2021년 대비 약 9%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사업장 발생 사고유형별 집중 저감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총량적 안전사고가 약 21% 저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H-SAT)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취약부문을 개선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도구인 'H-SAT(Hyundai-Safety Assessment Too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결과는 경영진 및 사업장 관리자의 성과지표(KPIs)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와 현장 사고예방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는 안전, 보건, 소방, 환경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저감목표 달성, 휴업사고 지표 관리, 리더의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등의 세부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H-SAT) 항목

영역	관리체계 평가 항목	현장점검 항목
안전	경영층 안전회의 등	로봇 방호장치 등
보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등	국소배기설비 등
소방	비상대비 대응 체계 등	화재 취약지 등
환경	환경설비 인허가 등	대기방지시설 등

안전디자인 기준 적용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장소, 시설 등에 대한 경고, 비상상황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작업 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전행동이 담긴 안전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디자인은 출입금지, 발화 및 낙하물 경고, 보호구 착용, 비상 시 대피, 작업 전 행동요령 등 작업 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제작·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안전디자인을 부착하며, 작업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디자인은 사업장 신설 및 개선 공사, 물류 하역장, 자동이송장치, 자재 하치를 위한 리프트 등에 적용 가능하며, 사고 저감에 우수한 효과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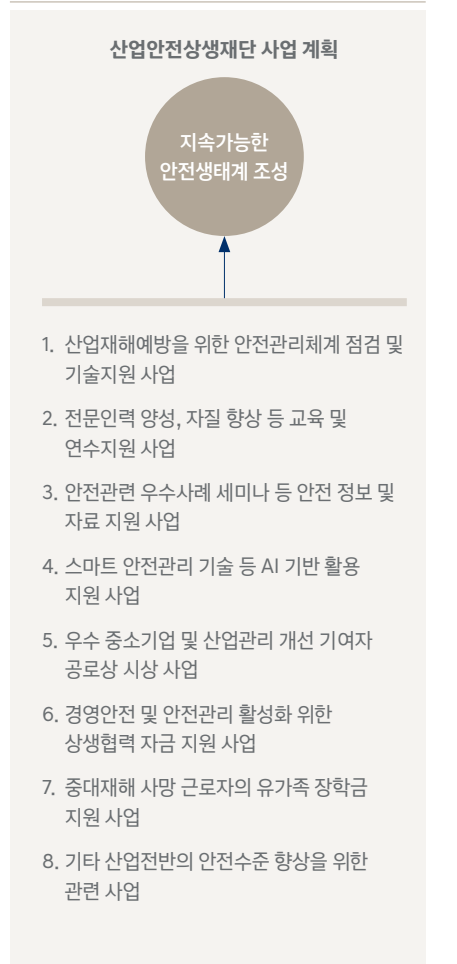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동영상 '미래 안전교육 콘텐츠는 총 36편(심화 6편, 마이크로러닝 3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수칙, 사고예방, 중대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VR 기기를 착용해 가상현실로 구현한 위험요소를 체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VR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산업안전상생재단을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사와 동종산업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내 작업 및 공사 등을 위해 출입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출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안전보건 교육 운영 결과

	구분	교육 대상	운영 시간
법정 안전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자 (5,516명)	연간 8시간 이상
	특별 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39종)	연간 16시간 이상
	전 근로자 정기교육	현장근로자 (33,045명)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지휘·감독 현장관리자 (1,531명)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2시간 이상
역량·특성교육	직무역량 교육	안전 관리자·추진자 등 (253명)	최대 2박 3일
심리 안전상담	심리상담 및 관련 교육	임직원 및 가족, 협력사 등 (1,449명)	1회 약 1시간

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기능성과 편의성을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과 현장 적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산업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체크스(CEX)는 작업자의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무릎관절 보조 로봇으로, 1.6kg의 경량형임에도 150kg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신장과 맞는 자세를 조절할 수 있어, 허리 및 하반신 근육 활성도가 약 40% 줄어들어 작업 효율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벡스(VEX)는 조끼형 착용 로봇으로 위를 보고 장시간 일하는 상향 작업 근로자를 보조하는 로봇입니다. 중량은 2.5kg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부담 을 주지 않으며, 관절 구조와 스프링이 신체 움직임과 결합되어 최대 5.5kg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출범 2022년 9월, 현대자동차 포함 6개 계열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안전수준 향상과 상생안전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안전 최우선경영 의지를 그룹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중소기업 전반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외골격 착용로봇(VEX), 의자형 착용로봇(CEX)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안전보건 활동 추진

안전보건 관리 활동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진단, 소음·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 및 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사업장에서는 휴무일 공사 안전감독 등을 강화하여 3,646건의 설비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사업장, 연구소, 정비소, 친환경차 관련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101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검진과 치료 등 사후조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생활습관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 활동도 지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금연 클리닉, 금연 캠프 운영, 금연 클린 공장 홍보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홍보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활동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표지 부착	작업환경 안전조치	기계·기구·설비 안전조치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개인 보호장비 지급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며, 위험 및 장해 예방 조치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비상상황 시 대응하기 위한 안내 등을 식별가능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작업환경 내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합니다.	기계·기구·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를 취하며, 잠재적 위험이 없도록 유지·보수·점검합니다.	원재료, 가스, 증기, 고온, 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보건조치를 취합니다.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예비보호구를 비치·관리하는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안전보건 진단	비상상황 대응	유해물질 관리	건강증진 활동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재해 조사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합니다.	추락·붕괴·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고, 소방장비 등의 기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취급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목격화 및 비치하며,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조치합니다.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호흡기·근골격계 등 업무상 질병 예방과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며, 진단·교육·협의 등 밀착관리로 재해예방을 강화합니다.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산업재해 등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개선 목표에 반영합니다.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현대자동차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제 요구사항 이행과 더불어, 국내외 중대재해 대응 관련 동향을 바탕으로 전사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안전 점검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점검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Database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Database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후조치 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상시 수행될 수 있도록 사고사례 및 산업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 지원 및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협력사의 재해예방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 정보등록부터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평가(1,515건) 진행, 안전 협의체(160회) 운영, 합동점검(48회) 실시 등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 120개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 특별교육(3회), 사내 협력사 안전감독자 교육(4회)을 실시하는 등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상상황 종합 훈련 현대자동차는 화재·폭발·유출과 같은 재난상황, 고온·폭우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 등 정보유출과 같은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철저한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상·하반기 연 2회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상황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주요 활동

구분	활동내용
모바일 정기 안전 점검	• 작업공정 및 운영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기반 정기 안전 점검 실시하여 지속적 위험 관리
사각지대 스마트 모션 센서 설치	•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모션 센서를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사고발생 사전 차단
인체감지 센서 설치	• 지게차 등 운반기계 조작 시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위험성 저감 위한 인체감지 센서 등 설치
안전관리 규정서 개발	• 휴무시간 등에 이루어지는 비정형 공사작업 관리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규정서 개발

종합 훈련은 일정계획 수립,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비상상황별 행동요령 이행, 개인별 분반 및 임무 수행으로 구성되며, 종합 훈련 담당자는 훈련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비상상황 종합 훈련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훈련 수준 및 강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종합 훈련 시 확인한 미흡사항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 및 대응계획을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협력사 산업재해 예방 노력 현대자동차 각 사업장은 사업운영 방식, 협력사 유형,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장 및 공정 안전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산공장은 주요 협력사(30개)와 ‘산업재해 없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의 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및 완성차·협력사 상생 안전점검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주공장은 모든 협력사의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사 공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및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	행동
진술 확보	최초 목격자의 진술 확보
공정 확인	공정을 확인하고, 사고발생 원인 등 청취
사진 촬영	전체 공정 및 사고 재연사진 촬영
원인 분석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여러 대책 수립 후 가장 이상적인 대책 적용

* 사고조사 행동요령: 사고 발생시 상기 단계에 따라 확인하며, 누락시키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함
 ** '6차 원칙'을 기초로 한 사고 조사 진행하여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큰 원인부터 작은 원인(Top Down 방식)으로 확인함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맞춤형 복리후생 지원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현대자동차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가 적용되는 직군은 의무 근무시간을 제외한 선택가능 시간대 내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재택, 거점) 근무제도 현대자동차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임직원이 장소에 구애 받지않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원격근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바일 PC와 사외 접속이 가능한 VPN 환경 및 온라인 화상회의 서버 구축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사무실이 아닌 지정된 공동공간에서 일하는 거점근무 형태로 하이브리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지원 제도

퇴직연금 제도 현대자동차는 정년퇴직 대상 직원들이 퇴직 후 삶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준비금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연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 교육을 실시하여 퇴직 후 임직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미래설계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과 직군에 따라 차별화된 미래설계 과정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4,23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출산·육아·가족돌봄·임직원건강 지원 제도

구분	제도	주요내용
출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직원의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 단축 제공 시업 후 2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시업 후 1시간 + 종업 전 1시간 중 선택 가능
	출산 전·후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의 보호 휴가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
	유산·사산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 유산, 사산 등 임직원 건강을 위하여 임신 주수에 따른 휴가 일수 부여
	배우자 출산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대상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10일 지원
	주중출산휴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배우자 임신 및 출산 시 임신 6개월~출산 12개월 내에 회사 지정 호텔 숙박 제공 (최대 2박)
육아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까지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 사용 가능 (첫 해는 2회 분할, 두 번째 해는 1회 분할 가능) 육아휴직과 대체 사용 가능하나, 육아휴직과 포함하여 최대 2년 사용 가능 시업 후 2시간 또는 4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4시간, 시업 후 2시간 + 종업 전 2시간 사용 가능
	수유시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직원에게 대하여 1일 120분의 유급 수유시간 제공
	사내 어린이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혼 직원 및 한부모 자녀 등을 위한 사내 어린이집 지원 본사,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 총 5곳 운영
임직원 건강	직장 스트레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톡톡센터(심리상담센터), 임직원 마음챙김 그룹 클래스 운영 (자녀 양육,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직장 내 갈등 완화 등 심리상담·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해외 주재원/GEP 임직원 및 동반 가족 대상 인터내셔널 SOS 서비스 운영 (스트레스 관리 지원)
	스포츠·건강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내 임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집나지움)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가족 돌봄	가족돌봄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 지원

퇴직연금 운용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말	2022년 말
보험상품	5,840,100	5,985,348
기타	3,235	2,572
합계	5,843,335	5,987,920

2022년 퇴직자 미래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대상	매니저 이하 (조합원)		간부사원	
	과정명	미래설계 57-60	상담	미래설계 기본과정
연령	만 57~60세	만 57~60세	만 59세	만 60세
수료인원	2,716명	775명	351명	390명
형태 구분	강의 및 체험 등	상담	강의/상담 (비대면)	강의/상담 (비대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인식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기 점검 미래설계 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1 맞춤형 경력 상담 재취업, 귀농귀촌, 자기계발, 생애설계, 창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경력·흥미 탐색 재무진단 및 재무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희망경로에 따라 경력 분석 및 전직 실행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공급망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바탕으로 투명구매실천센터,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글로벌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협력사·정부·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사 대상으로 품질·기술·경영 전반의 역량강화 과정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특허 출원 확대, 금융 및 세제 지원, 사업다각화 촉진 활동 등 자동차 산업 특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생산성, 기술개발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정거래 협약 체결 협력사와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제거하고,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4대 실천사항과 협력사 행동규범을 게시하고, 부정비리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합니다. 또한, 협력사에 교육·기술·자금 등을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하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1기 협약체결 이래로 2022년에도 협력사와 14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新) 동반성장 협약 체결 2022년 10월, 현대자동차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과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품사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공동투자형 R&D 기금 조성, 스타트업과 협력사 매칭 및 기술협력 지원, 협력사 사업다각화 컨설팅 및 사업화입니다.

장기 협력체계 구축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사, 1차 협력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사, 그리고 일반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일반구매 협력사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장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 협력체계 구축 성과

평균 거래기간	35년 (국내 중소 제조업 평균수명 13년)
기업 성장규모	2001년 대비 매출 규모 4.4배 증가
해외 동반진출	730개 협력사와 해외 동반진출

* 2022년 기준

투명구매 실천센터 홈페이지 구성



동반성장 기반 강화

협력업체 고충처리

투명구매 실천센터 협력사에게 윤리적 행동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와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동반성장 홈페이지 내에 투명구매 실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과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제품·수량을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정책' 시행 등 협력사 공급망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역량강화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협력사가 자체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교육시설 및 강사를 지원합니다. 현재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

2022년 협력사 대상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 참여자	비고
자동차부품 산업진흥재단	2,869	맞춤교육 과정 13개 운영
글로벌상생협력센터	1,697	일반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합계	67,648	510개 과정 운영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장지도 및 교육사업

현장지도	기술지도	생산현장 품질/기술 지도
경영컨설팅	품질학교	전문가의 부문별 노하우 전수
교육사업	품질기술 세미나	품질시스템 확립 위한 13과정 등 운영
	경영일반교육	업종별 기술지도 우수사례 전파
	부품사 방문교육	생산성 혁신을 위한 10과정 등 운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지원

경쟁력, 글로벌 역량, 리더십, 자동차 산업 전문가 양성, 직무 기본 교육 등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18개 트랙과 437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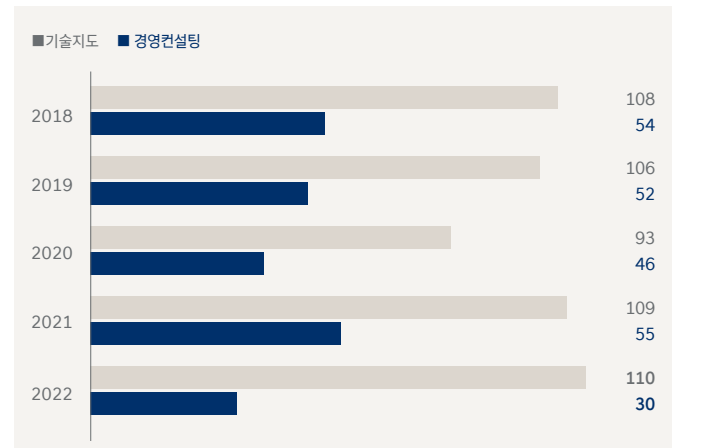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품질·기술·경영의 전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아, 현대모비스와 함께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활동, 분야별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기술지도 프레스, 열처리, 용접, 도금, 단조 등 금속분야, 고무, 도장, 전기전자, IT 등 비금속분야 협력사의 부품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한 기술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품질불량 개선, 원재료 구매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경영컨설팅 협력사가 R&D, 생산, 품질, 물류, 원가, 경영활동 분야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영컨설팅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협력사 수

(단위: 개)



지속가능한 공급망

품질 경쟁력 제고

5스타 제도 협력사의 품질·기술·납입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협력사가 개선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스타 인증 협력사에게는 대금 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신차 개발 시 부품 공급 협력사 우선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5스타 제도를 통해 품질·기술·납입 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품질관리 비용 절감, 독자 수출능력 확보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3차 협력사 품질평가(SQ 마크 인증) 자동차 부품 품질에 주요영향을 미치는 전문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 2·3차 협력사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검사기준 운영, 설비보존 및 일상점검 활동, 작업표준 작성 및 보완 등 공정관리, 완제품 검사, 시정조치 및 지속적 현장개선 등 품질관리 활동 등을 기준으로 2·3차 협력사를 심사하여 우수 협력사에 SQ 마크 인증을 부여합니다.

내구신뢰성 개선 활동 현대자동차의 내구품질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하여 협력사의 고질적 문제(고객 불편 현상, 클레임 및 리콜 등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내구신뢰성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별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내구품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간 기술협의회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약 100여 개 1차 협력사와 내구품질 문제 개선을 위한 협업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스타 평가항목

품질 5스타	기술 5스타	납입 5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체제 입고 불량률 클레임비용 변제율 품질경영 실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인력, 투자 신기술 개발, 특허 부품 개발 업무체계 (기획/설계/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라인 정지 건수, 시간, 변제금액(비율) A/S 부품 납입률 CKD 부품 납입률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신뢰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 매월 국내외 모든 공장에서 현지 협력사 대표전원이 참석하는 ‘협력사 품질 월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당사 납품품질 관련 우수 사례 및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시행된 개선 조치에 대한 진행경과와 효과성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신차 양산이 확정되면, 양산 이전에 본사에서 직접 해외 공장에 품질업무 담당 임직원을 파견, 협력사 교육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납품 수준이 당사의 품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품질경영 세미나 현대자동차는 모든 1차 협력사 대표자 및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품질경영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제3차 감사관 TPA(업무관리대행사) 강연을 통해, 미국 현지의 품질 이슈 대응사례와 협력사가 관리해야 하는 품질관리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품질본부는 현대자동차의 중점 품질확보 추진전략, 구매본부는 신차개발 품질 역량강화와 양산차 부품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사의 역할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는 정성품질을 개선한 실제사례와 효과를 소개하고,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한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2022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협력사)

품질 관련 교육	대상	주기	이수 협력사
품질경영 세미나(대면)	국내협력사 100%	연 1회	345개사
품질경영 교육(품질 월간회의)	협력사 100%	월 1회	1,680개사

기술 개발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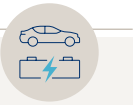
협력사 R&D 기술지원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R&D 기술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의 부족한 기술에 대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R&D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품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과거사례 및 기능·설계개념 교육, R&D 부족 부문을 사전에 분석하여 핵심현안을 개선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능력을 향상시키는 R&D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개선, 맞춤형 기술, R&D 역량강화 지원 과정에서 협력사 요청사항을 조사하여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동종산업 협력사 간 협의체 및 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상호 소통·협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무상제공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협력사에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무상제공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특허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협력사의 주요 사업분야, 보유 및 개발 중인 기술, 특허권 보유 현황,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원상담을 실시하며, 협력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특허권 이전 확정 및 특허계약을 체결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특허권 이전 후, 해당 특허권을 적용한 R&D 고도화 및 제품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신기술전시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육성 1·2차 협력사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공장 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0억 원을 출연하여 660개 협력사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 관련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육성 사업은 1·2차 협력사의 생산설비 현황을 고려하여 부분적 표준화, 데이터 관리,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 수준, 수집된 정보 기반의 제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중간 수준, 모니터링부터 제어·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되는 고도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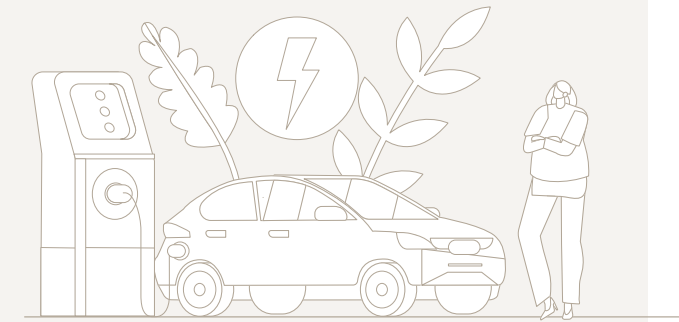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 현대자동차의 신차 개발 과정에 부품 협력사의 설계·평가 업무 담당 연구원(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연구원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환경과 부품성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시험장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당사의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신차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협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는 부품 및 성능개발 효율성 증대, 조기 품질 확보, 협력사 기술인력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기술 벤치마킹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협력사의 핵심 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특허도 공동으로 출원하여, 중소 협력사가 기술 및 특허를 침해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출원 및 특허검색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기반 특허교육 실시, 협력사의 특허출원 비용 절감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협력사 기술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D 협력사 테크데이

2022년 10월, 협력사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호협력 기반의 동반성장 도모를 위해, 우수 신기술 협력사를 포상하고 협력사의 기술을 상호 교류하는 ‘2022 R&D 협력사 테크데이(Tech Day)’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대응 이중화 전원 공급 제어기, 냉각수 및 냉매 시스템 부품 모듈화, 차체-배터리 일체형 구조 언더바디, 고전압 배터리팩 등 연구개발 공로가 큰 4개 협력사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영상 전시회에는 총 32개 협력사가 참여하여 60건의 연구개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공유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지속성장 기반 강화

납품대금 현금 지급 및 원자재가격 조정 2006년부터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어음(60일)으로 지급하며, 주 1회 단위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출용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게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월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협력사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변화로 인한 영향을 당사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철판, 귀금속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국제가격 기준으로 직접 구매하여 업체에 공급하는 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은 국제가격 등에 따라,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동반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지속 성장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협력사와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1차 협력사 341개, 2차 협력사 389개 등 총 730개 협력사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는 해외 OEM 업체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 협력사가 해외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물류 공동화,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해외수출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주요 자금지원 프로그램

미래성장상생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4억 원 예치, 935억 원 지원 - 1, 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IBK기업은행)
미래성장동반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억 원 예치, 1,500억 원 지원 - 1·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현대캐머셜)
상생금형설비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억 원 예치, 750억 원 지원 - 협력사의 신차종 금형 및 설비의 담보가치 기반 자금조달 및 금리안정 지원
상생협력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억 원 지원 - 현대자동차가 조성한 자금으로 2·3차 협력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2·3차 협력사 전용 대출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억 원 지원 - 2·3차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 위한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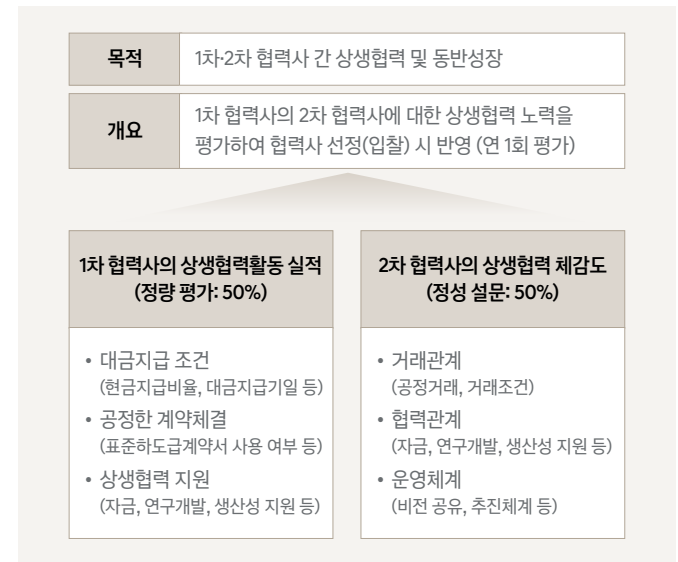
미래차 부품사업 전환 지원 전동화 확대, 자율주행 전환 등 내연기관 부품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협력사가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여 미래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차 부품사업 확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역량분석 및 추진방향 컨설팅, 미래차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선정, 특허분석 및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부품을 확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재편 정부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재편 파트너십 선정 및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및 대출금리 할인, 스마트공장 구축 신청 시 가점 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3차 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생협력 5스타 제도 운영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강화와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여 입찰 과정에 반영하는 ‘상생협력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하며, 현금지급비율, 대금지급기일 등 대금지급 조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계약의 공정성, 경영자금·연구개발·생산성 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협력사 대상으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체감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거래조건 등과 같은 거래관계, 경영자금·연구개발·생산성 등의 협력관계, 비전 공유 및 추진체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생협력 5스타 제도



2·3차 협력사 품질기술 육성 2·3차 협력사에 자동차 관련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2·3차 협력사의 품질·기술·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품질기술 육성’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2·3차 협력사 등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대금지급) 한도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게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2·3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1·2차 협력사는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등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지도 (품질·기술봉사단)

구성	업종별 전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 3~12개월 간 무상으로 생산기술 관련 취약사항에 대한 지도
지도 분야	품질/기술 중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을 지원하며,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점 지도를 통해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대응력 향상

품질·경영 컨설팅 (협력사 지원단)

구성	완성차 임원 출신 자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 3~12개월 간 무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지도
지도 분야	생산관리, 품질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지속가능한 공급망

공급망 ESG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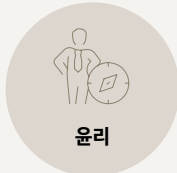
공급망 ESG 확산

협력사 행동규범 재·개정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본 행동규범을 적용받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경영이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현대자동차가 직접 또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ESG 리스크 진단·실사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현대자동차의 리스크 개선 권고에 따라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망 ESG 관리 계획 및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감독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선정기준 내 ESG 반영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ESG 리스크 진단·실사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환경 사고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품질경영체제, 재무구조 및 경영능력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ESG 및 안전·보안 등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거래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 협력사들도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제재 등 페널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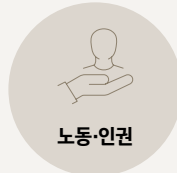
윤리

- 투명경영 및 반부패
- 불공정 거래 방지 등




환경

-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생물다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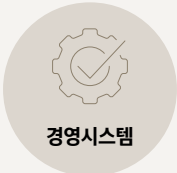
노동·인권

- 결사의 자유 보장
- 아동·강제 노동 금지 등



안전·보건

-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비상상황 대응 등



경영시스템

- 투명경영 및 반부패
- 불공정 거래 방지 등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또한 공급망 실사규정을 강화하고, 강화된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 및 기본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협력사들에게 공급망 ESG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등록 시 ESG 서류 구비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평가 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사의 평가보고서, 실태조사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윤리서약서,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 품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지속가능성 향상에 관한 서약을 협력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협력사 분포 현황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는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중남미, 동남아 등). 이 중 핵심부품(수소연료전지부품, 배터리부품, 제어부품, 전동화부품 등)을 공급하거나 타협력사로의 대체가능성이 낮은 협력사, 그리고 거래규모가 큰 협력사들을 중점관리(핵심) 협력사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1차 협력사는 1,680개(구매 비중 100%)로 국내 380개, 해외 1,300개입니다. 1차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47개(구매 비중 65%)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2차 협력사도 파악하고 있으며, 2차이상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24개입니다.

협력사 대상 ESG 확산·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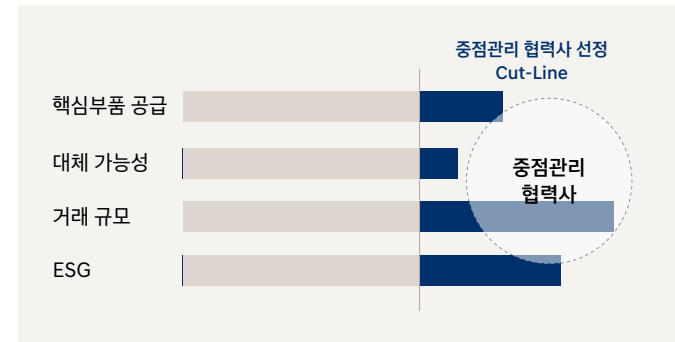
동반성장 소식지 배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산업안전, 정보보안,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협력사와 공유하고자 '동반성장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격월 주기로 발간하여 대외문, 동반성장포털(<http://winwin.hyundai.com>), 협력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1차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경영 분야 주요 배포내용

- 2월 2022년 협력사 ESG 개선 주요 계획
- 5월 협력사 탄소중립 이행가이드 라인 공지
- 10월 2022년 협력사 ESG 평가 및 개선 진행 현황 공유

설명회 및 온라인 교육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 사전 예방 및 협력사의 ESG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사 대상 설명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협력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ESG 실무자대상 각종 설명회를 실시하여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ESG 주요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지표와 주요 동향,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협력사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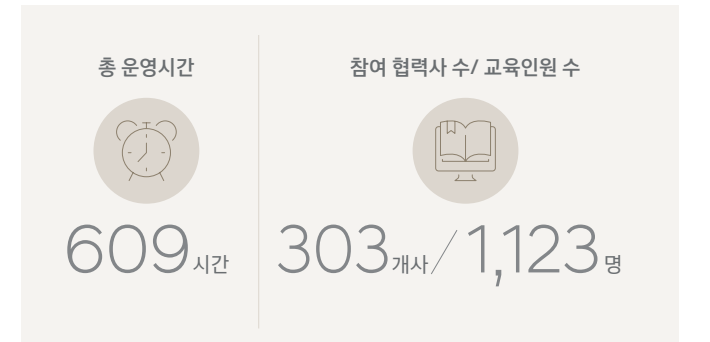


협력사 ESG 개선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사 ESG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ESG 개선 로드맵에 따라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ESG 리스크 진단·실사 대상을 해외 진출 협력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ESG 역량을 확보하고 ESG 주요 규정 및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데이터 관리 템플릿을 공유하였습니다.

협력사 ESG 개선 로드맵



2022년 협력사 ESG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결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공급망 ESG 진단·실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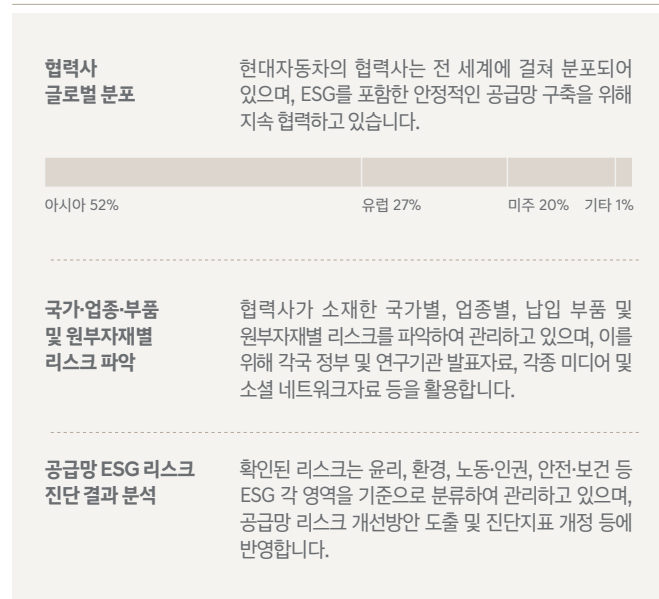
리스크 진단·실사 절차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관리는 서면진단-현장실사-고위험사 선정-개선 및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되며, 공급망 내 발생가능한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에 따라 진단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진단 지표 구성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환경·노동·안전 보건·공급망 실사 등과 관련된 법규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Vadis, 책임 있는 사업자 연합(RBA), 자동차부품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Drive Sustainability) 등의 지표와 기준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만의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지표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사의 규모와 핵심지표 충족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를 공급망 운영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진단·실사 단계



사전식별 (Risk Filter) 현대자동차는 리스크 진단실사를 수행하기 전, 공급망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를 사전식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현대자동차가 사전식별 과정을 통해 선정한 중점관리 1차 협력사는 47개이며, 중점관리 2차 협력사는 24개입니다.



서면진단 (Written Assessment) 현대자동차는 당사만의 차별화된 지표와 기준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은 국내외 모든 협력사가 접근가능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되며, 협력사가 자가진단방식으로 평가지표에 응답하고 증빙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력사 서면진단 결과는 협력사의 ESG 리스크 확인, 현장실사 대상사 선정, 고위험 협력사 구분 등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현장실사 (On-site)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소재 국가, 업종, 납입 부품·원부자재, 서면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잠재적 또는 실제적 ESG 리스크가 확인되는 협력사를 현장실사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및 평가에는 ESG 컨설팅 및 진단·실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 구매부문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는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폐기물 및 오염물질 적법처리,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기반 근로시간 관리 및 급여 지급, 위험성 평가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 수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의 시스템 및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현장방문 시에는 근로현장에서 우려되는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관리 전략 연계 진단·실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공급 안정성, 공정거래 준수, 친환경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5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방향별 주요 성과지표(입고불량률, 신뢰성 시험역량, KD부품 납입률, 대금지급 조건, 에너지 사용량 등)를 수립하여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당사의 공급망 관리 전략에 참여·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략 연계 관리 지표' 및 'ESG 리스크 진단 지표'를 설계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협력사 수준을 진단·실사(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전략

전략 방향	성과지표
품질 경쟁력	입고불량률, 클레임변제율, 품질경영, 제조공정 현장평가, 외주사 관리
기술 경쟁력	기초역량, 수행능력, 미래역량, 신뢰성 시험역량, S/W 검증역량
공급 안정성	원활한 부품공급(생산라인 정지 예방), A/S부품 납입률, KD부품 납입률
공정거래	대금지급 조건, 계약 공정성, 법/규제 준수, 상생협력 활동(등반성장 지원)
친환경 생산체계	환경경영시스템, 에너지 사용,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지표

ESG 리스크 진단 지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방지 위조부품 방지 수출제한 준수 정보보호 책임 있는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경영시스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수자원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 금지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인도적 대우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계/기구/설비 안전 비상상황 대응 사고 관리 안전 진단 보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성명서 공시 담당자 선임 리스크 점검 교육 및 소통 정보 관리 고충처리 제도 거래업체 관리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실사 결과

(단위: 개사)

구분		업체 수	비고
ESG 리스크 서면진단	1차 협력사	1,680	구매 비중 100%
	중점관리 1차 협력사	47	1차 구매비중 중 65%
	중점관리 2차 협력사	24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발굴	1차 협력사	13	목표: 중점관리 협력사 서면진단을 100% 달성
	중점관리 1차 협력사	-	
	중점관리 2차 협력사	1	
ESG 리스크 현장실사	1차 협력사	36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13개 포함
	중점관리 1차 협력사	1	목표: 고위험 협력사 ESG 현장실사를 100% 달성 목표
	중점관리 2차 협력사	2	
고위험 협력사 개선조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협력사	14	중점관리 1차·2차 협력사 중 1개 발견
	합의된 개선계획 수립된 협력사	14	중점관리 1차·2차 협력사 중 1개 계획 수립
	개선계획 이행완료 협력사	14	중점관리 1차·2차 협력사 중 1개 이행 완료

영역별 주요 미흡 사항 현장실사(평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협력사에게 벤치마크 기업 평균 점수 및 최고점수와, 미비점 및 개선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완 필요사항
윤리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정책 보유 및 분쟁광물 추적관리
환경	환경 데이터 지표 관리, 환경경영 커뮤니케이션
노동·인권	인권헌장 보유, 아동노동 금지 정책 도입
안전·보건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대재해 지표 관리 필요

리스크 확정 및 개선계획 수립 현장실사(평가)를 통해 협력사의 ESG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바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있으며, 이 외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추진시기, 추진방식, 예상 문제점 등을 협력사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실사와 더불어, 협력사의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목표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실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 1차 협력사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1차 협력사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ESG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안전설비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탄소배출저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달성 성과	ESG 평가 대상 범위 확대 (전체 1차사)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전체 1차사)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

구분	지원 대상	지원기간
안전설비 구축	1차사· 2차사	2023~2025년 (3년간)
보안시스템 구축	1차사· 2차사	
탄소배출저감 지원	1차사	

*지원 대상: 업체규모 및 업종 등을 감안하여 1차·2차사 중 선정

리스크 개선 지원 사례

ESG 진단/평가 대응역량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ESG 리스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가이드 및 ESG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협력사가 ESG 리스크를 관리·개선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컨설팅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탄소중립' 역량 증진 교육

현대자동차는 국내 1차 협력사 360여 개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개요 및 대내외 동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및 탄소정보공개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글로벌러닝센터 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가 사업장에서 필요한 탄소저감 설비를 교체할 경우에 장비구매를 지원하는 사업과 사업장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탄소경영 수준을 제고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협력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Global Supplier Day

2023년 3월, 미국 몽고메리 지역에서 미주지역 협력사 및 반도체사, 설비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Global Supplier Day'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현지 협력사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ESG 리스크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북미 아동노동 이슈를 포함한 공급망 ESG 이슈들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SG 온라인 교육 Portal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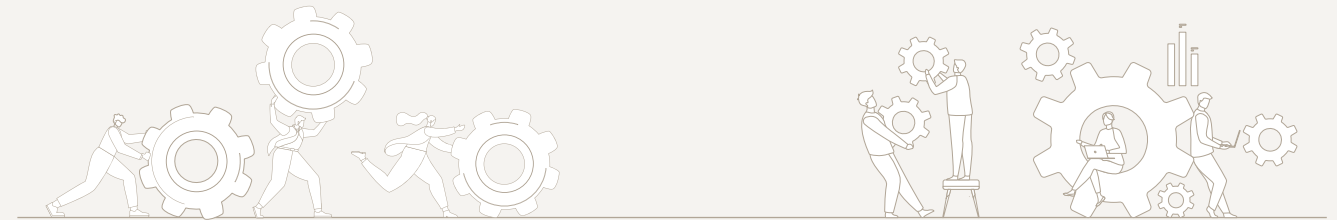
협력사의 ESG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협력사 담당자가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ESG 온라인 교육 Porta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실사 항목과 연계된 콘텐츠(ESG 개념, 대내외 동향, 우수사례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미 공급망 대상 '노동·인권' 관리 교육

미국 노동부와 협력하여 북미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정준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고용에 관한 현대자동차의 무관용 원칙'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 방법,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요건, 고충상담 위한 익명 채널 개설, 제3자의 고용 중개업체를 통한 고용 금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 배포

협력사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 관리체계 수립, 교육 및 투자 확대, 리스크 발굴 및 개선, 재해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안전보건 교육 자료도 제작하여 협력사 임직원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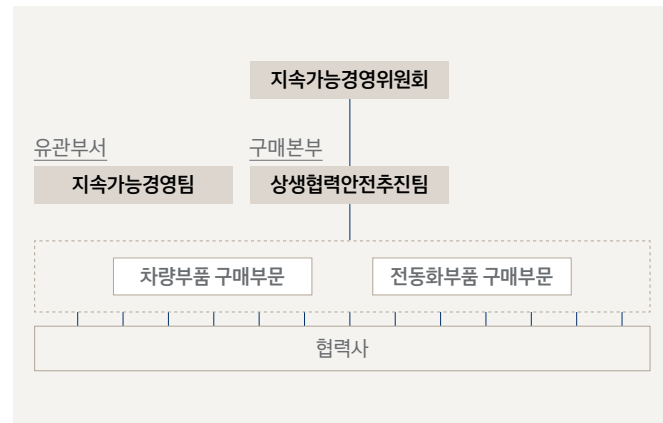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공급망

책임있는 광물 관리

분쟁광물 관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분쟁광물과 관련된 책임 있는 정책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구매본부 상생협력안전추진팀이 주관하여 분쟁광물 관련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상생협력안전추진팀은 각 구매사업부 및 협력사의 책임광물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속가능경영팀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광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감독 및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CEO의 KPI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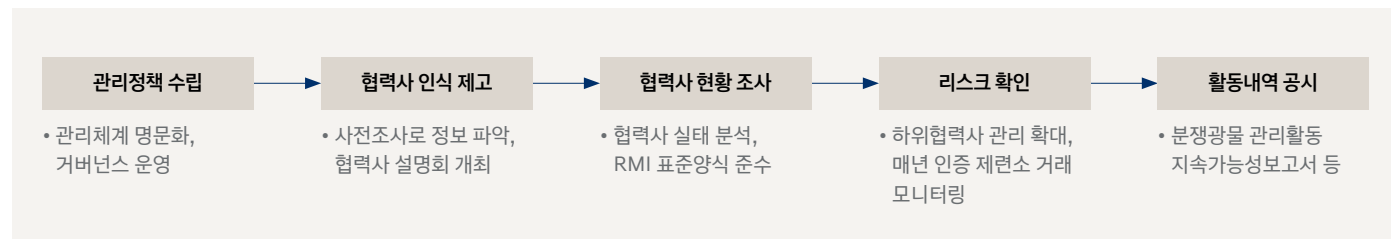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분쟁광물 관리 정책 현대자동차는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협력사와 공동으로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노동 이슈 등을 관리하고자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코발트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관련 설명회를 지원해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돕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사의 거래처에도 분쟁광물 미사용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OECD Due Diligence Guidance, 미국 Dodd-Frank 규제개혁법,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수립한 절차를 기반으로, 책임감 있는 광물 공급망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공급사 정보 수집용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및 EMRT(Extended Mineral Reporting Template)를 통해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대상으로 공급망(광산-제련소-1차 협력사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광물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분야 리스크가 식별·인지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고위험지역에 위치하거나,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하며, 협력사가 RMAP 인증을 획득한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를 매년 진단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



고위험(위험관리)지역 선정 현대자동차는 아프리카 10개 국가(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수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탄자니아) 등 분쟁지역을 위험관리 대상 지역(CAHRAs,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s)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불법 또는 비윤리적으로 채굴·유통되는 분쟁광물과 코발트의 사용 여부를 협력사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 위험지역에서 소싱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사 분쟁광물 현황 조사 및 리스크 확인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사용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협력사 및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43개)에 대해 분쟁광물 및 코발트를 사용한 부품을 공급하는 하위 협력사로부터 CMRT-EMRT 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재차 설명하는 등 모든 조사대상 협력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CMRT-EMRT 자료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RMAP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지 않는 협력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 시행 및 인증 제련소와의 거래를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미인증제련소에서 분쟁광물을 공급받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미인증 제련소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중장기 개선계획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련 리스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활동내역 공개 현대자동차는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별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매년 분쟁광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하여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력사 분쟁광물 인식 제고 현대자동차는 2022년 3월, 협력사의 분쟁광물 현황 조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일정 확정을 시작으로, 주요 전기차종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이 분쟁광물이나 코발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1·2차 협력사,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 당사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 배경, 주요국 분쟁광물 규제 동향, 당사 분쟁광물 관리 방침, CMRT-EMRT 소개 및 조사 계획, RMAP 인증 제련소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쟁광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경험 혁신

현대자동차는 ‘고장 없는 무결점 품질의 자동차’라는 품질철학을 실현하고, 운전자와 승객·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품질안전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판매 후에도 조기감지-조기개선-조기조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품질안전 문제의 대형화를 예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품질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품질안전 신고센터 운영, 안전정보 분석, 안전시험 조사장 설립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만족 극대화과 신뢰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품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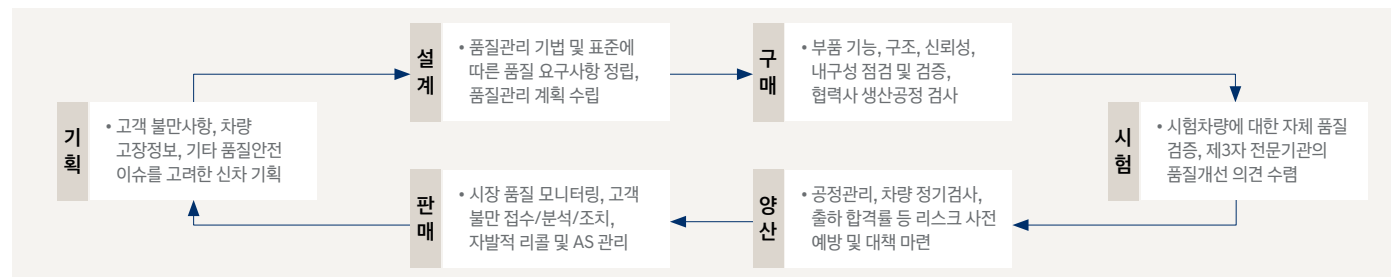
제품품질 관리

품질관리 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신차개발 선행 품질관리, 양산차량 품질관리, 고객불만 대응 및 품질보증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품질 리스크, 품질 불량 사례, 소비자 불만 등은 전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공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양기술연구소 파이롯트센터에서는 양산에 앞서 시험차량으로 차체 강성과 기능 등 품질을 측정 및 검증하고 있으며, 글로벌품질센터를 개소하여 선행 양산차량의 품질을 고객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고객의 다양한 품질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사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 생산사업장 또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동차 설계, 부품 개발, 공정 운영, 선행 양산,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생산사업장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전환에 맞추어 인증을 전환·갱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법 현대자동차는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 및 적용하여 ‘무결점 품질’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법은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Man)’, ‘최적의 설비(Machine)’, ‘철저한 검증(Measurement)’, ‘무결점 품질의식(Mor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프로세스



전동화 특화 품질관리 표준 전 세계적인 전동화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별 특화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제정·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확인, 발생 사례 분석, 개선활동 등을 통해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 리스크 선행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디자인, 설계 등 신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부품 협력사 사전 검증 및 생산공정 품질에 대한 점검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품질 리스크와 관련 생산공정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도면을 기반으로 부품의 기능과 구조·신뢰성·내구성을 검점하고, 협력사 공정 검사 및 생산공정 자체 검사 등을 통해 최종 품질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차량에 대한 자체 검증뿐만 아니라, 고객 및 품질 관련 전문가의 시승주행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활동을 수행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품질점검회의를 통해 신차 양산 이전 최종 단계에서 품질 리스크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최고경영층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산 품질 리스크 사전 예방 통계적 공정 관리, 정기검사, 출하 합격률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품질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품질 개선을 위한 합동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협력사 공정 관리, 품질예방 활동 평가, 품질 검사장비 유효성 검증, 부품 신뢰성 시험 등 차량 생산과정에서 품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차량 품질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참여 품질 리스크 선행 검증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완성도를 추구하고, 보람을 느끼며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신차 및 풀체인지급 총 6개 차종(아이오닉 6, 디올 뉴 그랜저, 디올 뉴 코나 ICE, G90, ELECTRIFIED GV70, G70 SHOOTING BRAKE)의 신차 품질 선행 검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부문의 임직원들이 Test Driver로서 양산을 앞둔 신차의 최종 품질 점검에 함께 하였으며, 작은 기능의 디테일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며,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품질 공감 캠페인 현대자동차는 ‘품질 공감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품질 최우선 마인드를 내재화하고 자동차 개발, 생산, 판매, 이후 전 과정에서 품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등의 품질 진단과 임직원 의견 공유’, ‘고객 및 임직원 간 간담회’, ‘생산품질담당 고객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증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선행, 제조, 시장품질 각 분야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품질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교육과정들은 기초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실습 및 체험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외부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품질검증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전동화 전환에 따른 신기술 검증, 고객 관점 품질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임직원)

품질 관련 교육	대상	주기	이수자 수
정규교육(집합교육, 이러닝 등)	품질 관련 조직 100%	연 1회	11,412명
상시학습(동영상, 디지털 교재 등)		상시	23,131명
품질 관련 자격취득 지원			82명

고객경험 혁신

품질 보증 및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품질관리는 물론, 판매 이후 고객 안전과 보호를 위한 품질 보증 및 관리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보증 현대자동차는 승용-SUV-상용(트럭, 버스) 등 차량 종류별 평균 수명주기-내구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별도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친환경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생산한 배출가스 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촉매장치, 전기제어장치, 기타 배출가스 부품을 보증하는 등 차량 주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현대자동차는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리콜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조상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리콜을 확정하고 고객에게 결함사항, 시정조치, 무상서비스 등 보상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콜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판매보증 총당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블루 기본점검 블루 기본점검 블루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차량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본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용 8년간 8회, 상용 3년간 7회)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차량 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울 경우, 현장 응급조치, 간단한 정비, 지정 정비업체 입고를 도와주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증기간 내 차량을 대상으로 출고 후 6년까지 무상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친환경 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기간

구분	차종	보증기간
하이브리드	그랜저, 쏘나타, 아이오닉, 아반떼, 투싼, 코나 Hybrid, 아이오닉 Plug-in	10년 / 20만 km
전기차	코나 Electric, 아이오닉 Electric,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10년 / 16만 km

* 승용, SUV 차량 기준

품질 VoC 대응 현대자동차는 전사 고객불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VoC(Voice of Customer) 기반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본부, 연구개발본부 등이 참여하는 VoC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여 품질 개선 안건을 다각화하고, 긴급 VoC에 대응하는 등 고객 의견에 기반한 품질 개선에 주력합니다. VoC 데이터를 연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은 각 서비스 거점에 전달하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차량 판매 후 고객 사용기간 3개월 이내 발생하는 클레임 건수를 연계한 품질지수를 CEO의 KPI 중 5%로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현대자동차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 설비, 물류 등 공장 내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는 물론 외부 정보까지 수집·분석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공장을 운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과정은 덜어내 제품 생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2023년 4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Hyundai Mobility Global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를 완공하여 완성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HMGICS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인 E-FOREST 구축에 활용됩니다

자발적 리콜 현황

(단위: 만 대,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리콜 차량 수	196	623	272	389
리콜 비용	78,000	305,200	1,442,300	320,900

판매보증 총당금 설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당기 초	5,177,128	5,447,307	8,514,173	9,048,185
해당기간 발생	2,261,010	1,963,782	2,551,716	3,133,544

도장검사지 딥러닝(Deep Learning) 스캐닝 인식 기술 현대자동차의 인공지능 전담 조직 AIRS Company가 개발한 도장검사지 딥러닝(Deep Learning) 스캐닝 인식 기술은 자동차 도장면 검사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도장검사지에 적힌 정보(검사 시간, 차종, 이상 유형, 이상 발생 위치)를 빠르게 추출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도장 공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특정 차종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향후 차량 하부 검사, 완성차 비전 검사 등 다른 생산공정 및 공장에도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휠 얼라인먼트 자동 조정 기술 현대자동차는 휠 얼라인먼트 조정 공정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휠 얼라인먼트는 차량의 바퀴 각도를 정렬하는 작업으로, 제대로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조향이 순조롭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휠 얼라인먼트 자동 조정은 해당 공정에 딥러닝을 활용하여 조정 정확도를 높인 기술입니다. 시가 과거의 휠 얼라인먼트 데이터를 학습해 예측한 조정값으로 작업하고, 다시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반복학습을 통해 새로운 휠 각도가 주어졌을 때 최적인 조정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VoC 접수 현황



2022년 VoC 유형별 분류



주요 품질 VoC 대응 사례

2022년 6월, 미국에서 당사 차량을 절도하는 틱톡 영상의 확산으로 인해, 잇따라 발생한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장착 구형 모델 차량 도난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난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도난방지 장치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6만 5천 개가 넘는 휠 잠금장치를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AAA(미국자동차협회)와 협업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다양한 보험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미국당국에서 요구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 최우선이라는 당사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고객의 안전확보와 손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경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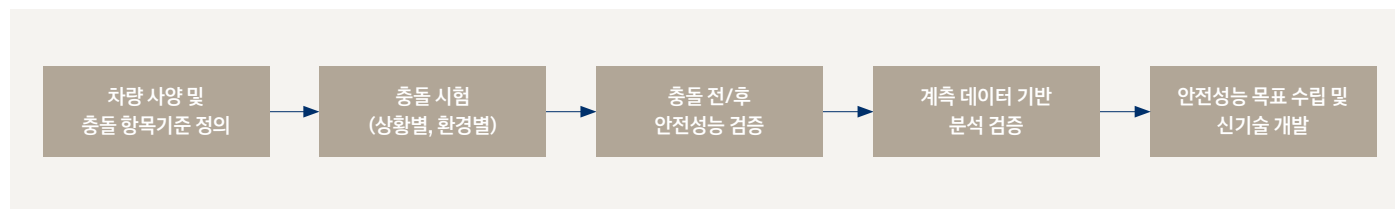
제품안전 기술

안전사양 결정 (차량 충돌 시험) 현대자동차는 최적의 충돌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5년 4만㎡ 규모의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을 설립하고, 연간 650회가량의 충돌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적 2,900㎡의 충돌시험장은 최대 중량 5톤의 차량을 최고시속 100km까지 견인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의 승객 안전 실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주요 충돌 안전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차의 안전 사양을 결정하기까지 500회 이상의 충돌해석 과정을 거치며, 차량 양산까지 100여 차례의 시험을 진행합니다. 충돌 상황에 따른 차대 차 충돌, 차대 구조물 충돌 시험을 병행하고, 경사로 환경에서의 충돌, 보행자외의 충돌, 대각선 방향의 충돌 등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충돌 시험을 진행합니다.

충돌 시험 이후에는 차량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합니다. 검증 과정은 충돌 직후 검증과 충돌 시험 후 분석 과정으로 나뉘는데, 먼저 충돌 직후에는 차량의 속도와 충돌 부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안전성능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이후 분석 검증에서는 충돌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합니다. 더미에 적용된 센서를 통해 상해 계측 데이터를 계산하고 차체 변형 정도를 계측해 종합적인 차량 안전성을 분석합니다. 목표 조건에 미달한 항목이 발견되면 데이터를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합니다. 충돌 부위에 따라 유관 부문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며, 개선 사양을 반영한 실차가 최종적인 안전성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검증이 반복됩니다.

충돌 대비 (구조 및 공법) 현대자동차는 환형 구조와 순차 구조로 나뉘는 차체 구조와 핫스탬핑 공법으로 완성된 단단한 차체로 충돌에 대한 안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형 구조는 차체의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부재를 고려처럼 결합해 실타래처럼 엮어 단단한 강성과 경량화된 무게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충돌 시험 절차



순차 구조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다른 사물과 충돌했을 때의 에너지를 차체가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정면으로 충돌 시 가장 먼저 사이드 멤버가 찌그러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 펜더 에이프런에 충격이 전달되는 동시에, 차레로 A필러 위쪽으로도 전달돼 나머지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킵니다. 또한 충격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마다 벌크 헤드(격벽)를 설치하여 측면 충돌 시에도 충격이 잘 분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핫스탬핑 공법은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도 차체 강성을 높이는 기술로, 고온에서 가열된 소재를 프레스 성형과 동시에 급속 냉각시켜 차체를 단단하게 담금질하여 완성합니다. 가공 전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강도를 지니게 되어 충돌 상황에서 승객실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충돌 시 충격 분산 (3세대 플랫폼) 현대자동차의 3세대 플랫폼은 충돌 에너지를 엔진룸에서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승객이 받는 최종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중 골격 엔진룸을 개발하여 정면과 스몰오버랩 충돌 상황에서 승객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상대 차량에 대한 충돌 에너지도 감소시켰습니다. 전면부의와이드 크래쉬 박스에 우물 '정(井)' 형태의 서브프레임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초기 충돌 에너지 흡수율을 높였고, 엔진룸 양쪽을 지지하는 사이드멤버뿐만 아니라 서브프레임, 펜더 에이프런 등을 유기적으로 잘 엮어 충돌 에너지가 여러 경로로 흡수 혹은 분산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서브프레임의 폭을 넓히고, 사이드멤버와 주변 골격 부재의 연결성을 강화해 분산 효과를 높였습니다. 특히 스몰오버랩 충돌 시 휠을 차체 바깥쪽으로 소폭 이동시키는 슬라이드 어웨이(Slide Away) 거동 기술을 추가 적용해 탑승자의 부상 가능성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승객에게 전달되는 충돌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주행 방향을 유지하기 때문에 2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현대자동차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MCB, Multi Collision Brake) 시스템을 적용해 2차 사고를 방지합니다. 최초 충돌 사고로 인해 차량 에어백이 전개되면, 차에 적절한 제동 기능을 작동시켜 다중 충돌을 경감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초당 200MB에 이르는 3세대 CAN 네트워크 방식으로 순식간에 이뤄집니다. 기존 안전 기술의 목적이 사고 회피 혹은 예방이었다면 MCB는 사고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탑승자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 주변을 함께 보호하는 확대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을 탑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를 방지합니다. ADAS는 자동차 앞 유리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및 후측방 레이더 등으로 차량 주변 사물과 움직임을 정확히 인식하며, 충돌 위험 감지 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차량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현재 ADAS는 자동차 스스로 앞차와의 거리와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카메라가 교통표지판을 인지하여 규정 속도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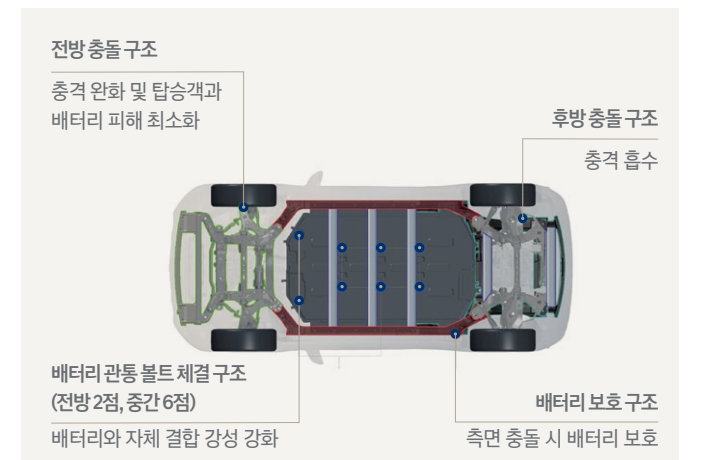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요 기능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선행 차량이 급격히 감속하거나 전방에 정지 차량 혹은 보행자가 나타나는 등 충돌 위험을 감지 시 경고하고 자동으로 제동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Lane Keeping Assist)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중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고 차로를 이탈 시 경고하고 자동으로 조향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BCA, Blind-Spot Collision-Avoidance Assist)	주행 중 혹은 평행 주차 상태에서 전진 출차 중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 감지 시 경고하고 자동으로 제동 보조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충돌 안전성능 개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는 승객 안전 중심의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터리팩을 구조물로 활용하여 차체 강성을 높이고, 사이드실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해 측면 충돌 발생 시 충격을 분산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후방 추돌 시 배터리 손상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리어 멤버의 변형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하부 멤버는 핫 스탬핑 강판으로 보강해 세이프티존의 변형을 방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격자 구조의 배터리 케이스와 하부 보호 커버를 더해 주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충돌 에너지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리던던시 시스템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으로 진화할수록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안전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시 시스템 고장이 감지된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주행 및 정차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자율주행 리던던시(Redundancy, 이중안전기술)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리던던시는 조향, 제동, 전력, 통신 등을 이중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보조장치가 이를 대체해 차량의 안전 운행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리던던시 시스템을 포함한 레벨4 자율주행 요소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E-GMP 안전성능 구성 요소



고객경험 혁신

운전자 보호 주행 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첨단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 리던던시 시스템만큼이나, 사고발생 시에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도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플랫폼 기능 강화 및 활용, 충돌 예방 및 완화 기술 적용, 사고발생 시 부상률을 낮춰주는 에어백 등을 연구·개발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습관가이드 방송’, ‘통학차량 안전운전 캠페인’,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보험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후드 멀티콘 구조를 통해 보행자와 충돌 시 차량이 이를 감지해 보닛을 들어올려 보행자를 보호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 시 보닛 아래 액추에이터(작동기)가 움직여 보닛이 6cm가량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닛과 엔진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생기면 보행자의 머리 부위 부상 정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머리 부상을 막는 것은 보행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또한 로어 레그폼·로어 스티프너 기능은 충돌 시 보행자의 무릎 꺾임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높여주고, 충돌 후 보행자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해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을 예방합니다. 차량과 충돌 시 보행자가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방향인 도로 쪽으로 넘어져 가해 차량에 다시 치이게 되는 2차 사고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충돌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GIDAS(German In Depth Accident Study) 등에서 공개하는 실제 사고 데이터와 사내 A/S량, 품질 부문에서 제공받는 여러 정보를 연구에 활용함에 따라 보다 복합적인 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복합충돌 에어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실차 충돌 시험에서 탑승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27종, 170세트의 인체 모형(더미, Dumm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최대 수준의 규모로, 다양한 충돌 상황에 따른 미세한 상해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 승객 안전 성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1개 차종을 새롭게 개발할 때 최고 수준의 충돌안전성 확보에 약 4천 시간의 평가와 시험, 그리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2 NCAP 평가 2022년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와 제네시스 GV70이 유럽을 대표하는 차량 안전 평가 기관인 유로 NCAP(Europ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유로 NCAP은 성인 탑승자 안전, 어린이 탑승자 안전, 보행자 충돌 안전, 안전 보조 시스템 등 크게 4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아이오닉 6와 GV70 모두 성인 탑승자 안전과 안전 보조 시스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탁월한 탑승자 보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2022 NCAP 안전성 평가 선정 차량

지역명	비율 ¹⁾	5-star (1등급)
한국	100%	아이오닉 6, GV70
유럽	100%	아이오닉 6, GV70
미국	69.2%	코나, 싼타페, 엘란트라, 쏘나타, 투싼,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G80, GV80 등 18개

¹⁾ 비율: 별 5개 등급(최우수 등급)으로 NCAP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된 차량 모델의 수를 NCAP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된 총 차량 모델 수로 나눈 값



탑승자 보호 에어백 주요 기능

복합 충돌 에어백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복합충돌 에어백은 1차 충돌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만큼 충격이 약할 경우, 탑승자의 불안정한 자세와 속도 등 여러 조건을 정밀하게 계산해 이후 충돌에서는 에어백이 더 쉽고 빠르게 작동되도록 기준 충격 강도를 낮추거나 작동 시점을 조절합니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주로 측면 충돌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서 전개되어 승객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 간 충돌은 물론, 내장재와의 충돌을 막아줍니다. 현대자동차는 ‘열압축 풀딩’ 공법을 적용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형태를 완성하였으며, 관련 기술로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허그 에어백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목적으로 고정형 에어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허그 에어백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3개의 챔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 여섯 개의 챔버가 마치 한 몸이 되어 탑승자를 끌어안듯 보호합니다. 향후 4~5단계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충돌시험장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

고객경험 혁신

고객만족 극대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 운영 현대차자동차는 차량 구매와 정비 과정에서의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개별 고객 응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고객 접점별 핵심 응대요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균일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권역 및 판매법인은 고객 서비스 전략 방향을 수립하여, 지역별 시장 특성 및 고객의 기대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객 응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역량 강화 차량 판매, 서비스 등 고객접점 채널 임직원의 CS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CS 학습환경을 통해 임직원은 차량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고객상담 스킬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는 'CS Way'라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고객 응대 솔루션을 현장에 전파하여, 고객 응대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트렌드와 블루핸즈 CS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 응대 우수사례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응대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고객 응대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소통채널 'H-ear' 온라인 상에서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수시로 청취하고 고객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오픈형 고객소통 채널인 'H-ear'(https://hear.hyundai.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ear'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차량의 상품성·신기술·친환경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정비 서비스, 판매 채널, 시장 및 트렌드, 기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서비스의 개발 단계부터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커넥티드카 관련 주요 서비스

원격 제어		• 원격으로 차량의 공조·충전·잠금 제어, 주차 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 홈투카, 카투홈, 음성 인식으로 차량 내 각종 장치 및 기능 등
안전 보안		• 에어백 전개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와 사고처리 지원 외, SOS 긴급 출동, 도난 추적, 도난경보 알림, 운전자 주의 알림, 후석 승객 알림 등
차량 관리		• 차량 진단 결과에 따라 A/S 연계 조치,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배터리 방전 자동 알림, 운전습관 분석 결과 및 안전점수 안내 등
길 안내		• 교통상황 및 예측 정보를 이용한 빠르고 정확한 길 안내,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제공, 포털 사이트를 통한 목적지 장소 검색, 차량 현재 위치 공유 등
뮤직 스트리밍		• 음원 콘텐츠 플랫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디지털 키 2		• 스마트폰과 NFC 카드 키 또는 UWB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 한 도어 잠금·해제 및 차량 시동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 현대자동차는 차량에 정보통신기술(IT)을 융합하여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차량 제어, 차량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Connected Car Services)인 '블루링크(Bluelin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루링크에 가입한 고객은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경로 탐색, 간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마이현대) 현대자동차 멤버십부터 차량 관리, 카 라이프 등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통합 고객 서비스 앱 '마이현대(my Hyundai)'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마이현대' 앱 접속 시 홈 화면에서 본인의 차량과 차종·색상이 동일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계약 정보, 고장 정보, 관련 리콜 정보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 예약과 결제, 블루멤버스 포인트 사용, 각종 쿠폰 혜택, 비대면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방문세차, 손세차, 대리운전, 차량이동(탁송), 전기차 픽업앤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고유 차별화 경험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스페이스'

'제네시스 스페이스'는 제네시스 브랜드 철학을 담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제네시스만의 품격과 감성을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2021년 공개한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Genesis House New York)'은 차량 전시장은 물론, 레스토랑, 도서관, 공연장, 테라스 가든 등을 포함한 복합 브랜드 거점으로, 일상 속 휴식과 예술적 영감을 충족하는 '문화의 오아시스'를 지향합니다. 제네시스 전 라인업과 미래 브랜드 비전을 담은 콘셉트카까지 다양한 차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스페이스를 통해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Genesis House New York)

블루링크 Fleet

현대자동차의 커넥티드 상용차(트럭,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특화 관제시스템인 '블루링크 플릿(Bluelink Fleet)'을 통해 차량관제부터 고장알림 SMS, 정비요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운전과 차량운영 효율 향상이 가능하며, 차량관제를 통해 차량 운행속도, 배터리 상태 및 전압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친환경 차량을 운행 시 감축한 온실가스를 나무 조성 성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고객이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이거나, 외부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예상치와 목표치를 비교하여 예상 수익·비용도 안내합니다.



블루링크 플릿(Bluelink Fleet) 대시보드 화면

2022 CS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수 / 이수 대상
H-Map (내방고객 응대 스킬)	330
신의 한수 (반론 극복)	89
설명의 기술	121
CS강태공 (CS 철학, 불만고객 응대)	169
상용 고객과의 첫 만남	8
응대의 정석	35
고객경험채퍼인십 현장 방문 코칭	85
고수의 설명법	141
출인원 불만고객 응대	44
CS Way	58
불만고객 응대 스킬	58
비즈니스 매너	58
한 줄 상담소	판매·서비스 부문 전 직원
CS Way	

고객경험 혁신

서비스 거점 구축 현대자동차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서비스 거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최고의 'CAR-LIFE'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전국 약 1,200개의 공식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를 구축하여 고객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동차 보유 고객을 위해 전기차 전담 블루핸즈 500여 개, 수소전기차 전담 블루핸즈도 70여 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브랜드	
블루핸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은 물론,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블루멤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자동차 오너 대상 서비스 - 2007년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오너를 위한 고객 서비스로 차량관리는 물론, 다양한 블루멤버스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의 즐겁고 편리한 CAR-LIFE 지원
블루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자동차 커넥티드 카 서비스 - 최신 IT 및 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주요 서비스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차량점검 및 정비상담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희망하는 곳을 방문하여 22~44km 주행 가능한 7kWh를 무상 충전
홈투홈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차량을 인수, 수리 후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
대여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중수리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운행불가 기간 동안 차량 대여

고객만족 대외 평가결과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현대자동차는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한국산업고객만족지수(KCSI),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객맞춤 서비스 차별화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시간을 가치 있게'라는 CS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에 필요한 애프터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최적화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권역 및 판매법인 고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전기차 구매고객 대상 차량 관리 및 충전, 배터리 수리 최적화 등 차량 모델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구매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고객 맞춤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네시스 특화 서비스	
찾아가는 오토케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여 엔진오일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제공
에어포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공항·인천공항 이용 고객 대상 점검·정비 및 안심주차 서비스 제공
홈투홈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네시스 모빌리티 케어 개수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홈투홈 서비스


기술·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

엔지니어 기술·정비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엔지니어의 기술·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에게 정비 관련 기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최우수 엔지니어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및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지침서 및 차량 매뉴얼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정비 엔지니어 기술 인증 (HMCP)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우수 엔지니어를 육성하여 양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독자적 기술 인증 제도인 'HMCP(Hyundai Master Cert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증은 엔지니어의 보유 역량에 따라 레벨1~2(테크니션), 레벨3(마스터), 레벨4(그랜드마스터) 총 4단계의 레벨로 구성됩니다. 2022년에는 실기시험 과정에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엔진, 차량 네트워크,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총 7개 항목 전문성을 평가하여, 총 26명이 레벨4(그랜드마스터)를 획득 하였습니다.


과잉정비 예방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책임감 있는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잉정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과정에서 과잉정비 의심 수리 발생 시 외부 보험사 주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과잉정비 협력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는 등 방문 고객이 안심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 방향




정비역량 강화

- 엔지니어 기술·정비 역량 강화
- 블루핸즈 정비인력 양성



우수인력 확보

- 우수 정비 엔지니어 기술 인증
- 전기차 정비 엔지니어 기술 인증



정비규정 운영

- 과잉정비 예방프로그램 운영
- 정비지침서 및 매뉴얼 배포

블루핸즈 정비인력 양성 고용노동부, 국내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정비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비 엔지니어 기술 인증 (HMCPe)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전문 정비 인력을 위한 전동화 마스터 인증 프로그램 'HMCPe(Hyundai Master Certification Program Electrifie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핸즈 엔지니어들은 각자 역량에 맞춰 전동화 기본, 전동화 고객응대 스킬업, 진단 소집 교육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e-Technician 인증은 전동화 기능 및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여 원활한 고객응대가 가능한 엔지니어에게 부여되며, e-Master 인증은 전동화 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적 진단, 고난도 수리, 하이테크 작업이 가능한 엔지니어에게 주어집니다.

정비지침서 및 매뉴얼 배포 현대자동차는 차량 정비를 위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구매 고객과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엔지니어 대상 정비 지침서, 전장회로도 등 차량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국내기술정보 웹사이트(gsw.hyundai.com)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이후 차량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부품도 순정부품 조회도 함께 할 수 있어 자가 정비의 용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고객경험 혁신

지속가능한 브랜드

브랜드 관리

브랜드 관리 시스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관리 시스템(BMS, Brand Management System)은 '브랜드 전략 체계', '브랜드 아키텍처', '브랜드 이미지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 체계'는 전사가 일관되게 대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브랜드 아키텍처'는 차량-기술-서비스 등의 브랜드 및 상표 체계(사용방식 등)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가이드라인'을 매뉴얼로 개발·배포하여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브랜드별 가격, 성능, 품질, 친환경성 분야로 구성된 지표를 바탕으로, 고객의 현대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구매의향,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브랜드 추적 조사(BTS, Brand Tracking Stud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선호도 측면에서는 당사 브랜드의 신뢰성, 경쟁력, 서비스, 경제성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진정성 요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당사 브랜드 차량의 시장가치를 평가받는 등 브랜드의 시장경쟁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추적 조사 결과는 판매지역별 브랜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도출하는 등 마케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차량(HEV, PHEV, EV) 브랜드(아이오닉, 넥쏘)에 대한 고객의 구매의향, 인지도, 선호도, 속성정보(혁신성, 편의성, 친환경성 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전략, 체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 브랜드 및 상표 이미지 등의 적용·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수하는 글로벌 브랜드 모니터링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내 포털 '브랜드홈', 헬프데스크 '브랜드데스크'를 운영하여, 각 사업본부 및 지원부문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등의 브랜드 사용을 검토하는 등 브랜드의 품질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 브랜드 및 상품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결과 분석 브랜드 추적 조사를 통해 고객이 당사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 사유, 구매 이전·과정·이후 등 고객경험 단계별 불만족 원인, 온·오프라인 채널에서의 부정적 경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인식 개선을 위해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파악하여 재정의하고 있으며,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콘텐츠 관리 방안 및 판매채널 운영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강화 활동

지속가능성 기반 브랜드 캠페인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한 브랜드 가치 제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딜러를 중심으로 판매 네트워크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CSV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성 기반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활동을 추진한 이후에는 해당 활동이 차량판매 증가, 고객만족도 증대, 기업가치 향상 등 사업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비전 연계 프로젝트, for Tomorrow 현대자동차는 유엔개발계획(UNDP)와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캠페인 'for Tomorrow'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론칭한 'for Tomorrow' 캠페인은 UN이 합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전 세계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for Tomorrow 플랫폼 설립 2주년을 기념하여 베트남, 시에라리온, 페루, 인도,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현지 크루와 함께 '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 총회를 맞이하여 링컨 센터 월터리드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브랜드별 차량 체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현대자동차는 고객들이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의 브랜드별 차량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HMG Driving Experi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소한 '현대자동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HMG Driving Experience Center)'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 체험관으로서 제동코스, 고속 주회로, 오프로드, 원선회 코스, 킥 플레이트 코스 등 8가지 체험코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시즌부터는 EV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에 아이오닉 6와 EV6 GT 차량을 신규로 투입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N브랜드의 전동화 비전 N브랜드는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로서 론칭 이후 고객의 관점에서 꾸준히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N브랜드가 추구하는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N차량의 3대 핵심요소(코너링 악동, 일상의 스포츠카, 레이스 트랙 주행능력)를 전기차 시대에도 반영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N브랜드는 2023년 첫 번째 전기 고성능차인 '아이오닉 5 N'을 론칭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전동화 시대를 넘어 수소 사회에서도 고성능 감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항목

가격	• 경쟁사 대비 당사 차량 가격에 대한 고객의 수용성(Price Perception 조사 기반)
성능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내구성, 첨단 기술력 등의 점수 분석
품질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보증 수준, A/S 품질, 신뢰성 등의 점수 분석
브랜드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브랜드 평판, 진정성, 전통, 인지도 등의 점수 분석
지속가능성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항목, 모빌리티 비전, 혁신성, 전도유망 등의 점수 분석 등의 점수 분석 • 친환경 차종이 Aided Awareness, Brand Perception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분석



'for Tomorrow' 캠페인



고성능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 N Vision 74

고객경험 혁신

수소 캠페인

수소사회를 위한 동행 'H₂U' 캠페인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와 수소에너지의 가치를 알리고, 수소사회로 전환의 시급성과 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H₂U(Hydrogen to You)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유튜버이자 연구원인 제이콥 보템프스(Jacob Beautemps), 독일의 패션 모델 토니 드레어 아데누가(Toni Dreher-Adenuga), 미래 모빌리티 전문 저널리스트 돈 달만(Don Dahlmann), 모바일직(Mobile Geeks)의 공동 설립자 니콜 스캇(Nicole Scot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H₂U 캠페인을 통해 수소의 무한한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소청소트럭 'Dear My Hero' 'Dear My Hero(디어 마이 히어로)'는 현대차그룹의 신기술 빅 아이디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탈바꿈 시켜주는 캠페인입니다. 수소청소트럭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로 운행되는 친환경 차량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청소차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열기와 먼지를 덜 배출합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H₂ MEET 2022'에서 수소상용차 공개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 'H₂ Meet 2022'에서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서든(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소개하고, 현대자동차의 수소 기반 미래 기술력을 보여주는 수소상용차를 공개하였습니다. 수소전기버스 경찰버스, 수소전기트럭 청소차, 살수차 등 청소 특장차, 수소 멀티콥터 드론, 수소연료전지 기반 엠비전 터그(M. Vision Tug) 차량, 수소 기반 탄소중립 제철 공정 모형 등을 전시하여 수소 상용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선보였으며, 정부·지자체 및 국내외 수소 산업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수소 기반 모빌리티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윤리적 마케팅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선언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올바른 제품·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광고 및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 및 마케팅 윤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제품·서비스 정보의 오기 및 누락, 제품·서비스 효용의 과장 및 축소, 경쟁기업·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않는 광고 및 마케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외부업체 또한 본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선언을 존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환경·안전 정보 라벨링 현대자동차는 차량 제작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용하는 물의 양 등 환경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나 승객감지 시스템, 카시트 탈부착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정보의 허위, 과장, 축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라벨링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H₂U(Hydrogen to You) 캠페인

Dear My Hero 캠페인

H₂ MEET 2022에서 공개된 현대 수소상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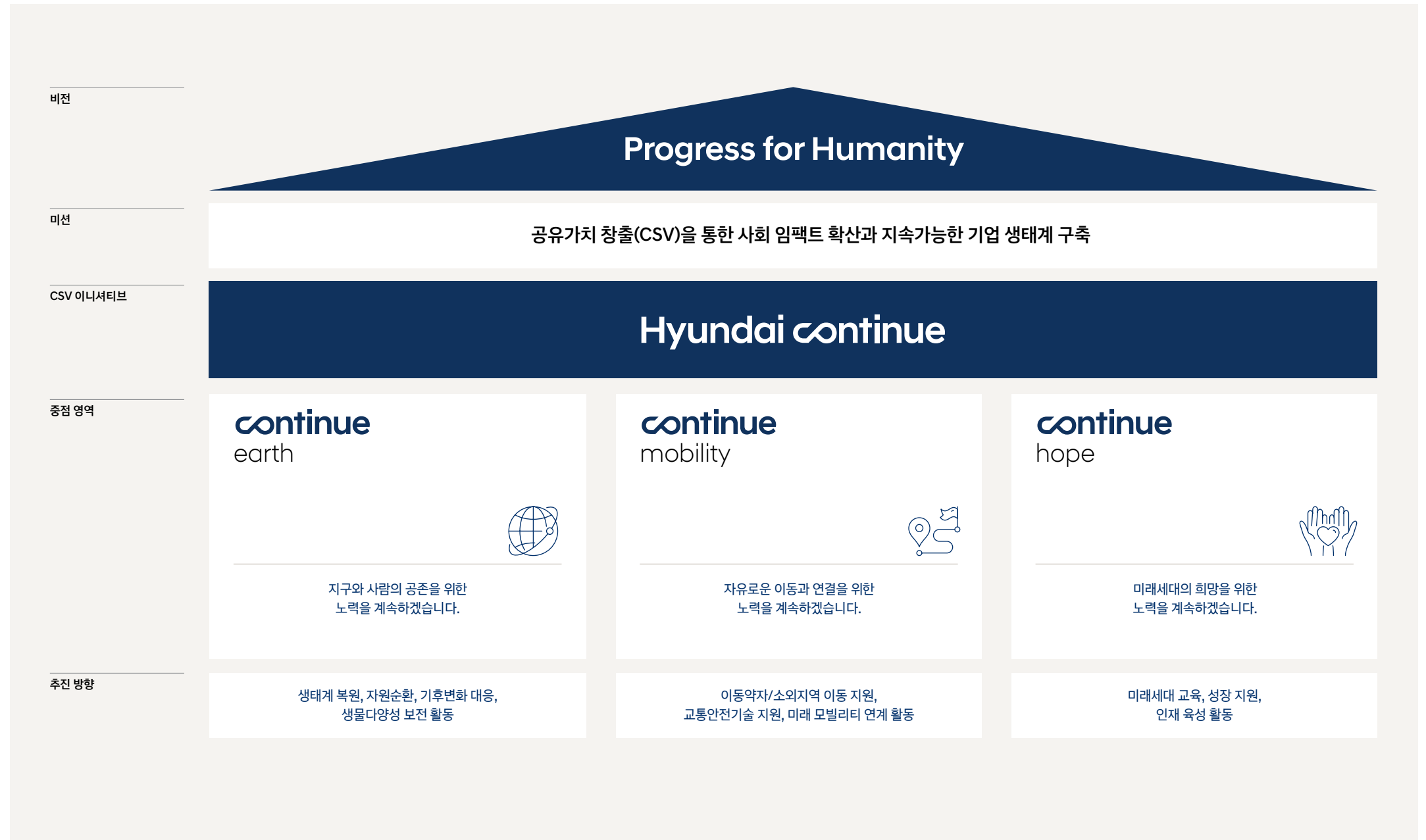
주요 판매국가별 제품 정보 라벨링

한국	제품	차종, 차명, 차대번호, 차량 총 중량, 제작연도, 타이어 등 자기인증 정보
	환경	연비,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등 정보
중국	제품	차량 ID, VIN(W/screen), 도난방지 정보
	환경	연비 정보
	안전	CCC, CRS 경고 에어백 정보
유럽	제품	차량 ID, 각종 단품 인증 E-마크(램프, 안전벨트, 경적기, 미러, 글라스 등)
	환경	디젤엔진 스모크, 배터리 리사이클링, 연료, 냉매 관련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임시 스페어타이어 속도 브레이크액, ISOFIX CRS 앵커 정보
북미	제품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정보
	환경	VECI(배출가스 인증정보 기재), 냉매 정보
	안전	타이어 공기압, 안전 인증, 에어백 경고 정보

공유가치 창출

현대자동차는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통해 사회 임팩트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아 'Hyundai Continue'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비즈니스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와 함께 공존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제공하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수많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임직원, 고객,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연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CSV 전략체계



CSV 이니셔티브

CSV 추진체계

CSV 전략 추진 현대자동차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이니셔티브 'Hyundai Continue'를 공개하였습니다. Hyundai Continue는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세대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장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

국내외 CSV 활동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업사이클링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유럽, 아프리카, 한국 등의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섬유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인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함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기물 중 하나인 유실 어망들을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폐그물들은 섬유 생산업체 아쿠아필(Aquafil)을 통해 에코닐(ECONYL®)이라는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에코닐은 유럽 내 판매되는 아이오닉 5 및 아이오닉 6 차량의 플로어 매트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양말, 수영복, 스포츠웨어, 카펫과 같은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프로젝트 론칭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2 주요 성과 2021년부터 유럽 내 8개국과 한국에서 약 20회에 걸쳐 누적 1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채널 등 주요 방송사와 협력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 기초소재연구센터와 함께 해양 폐기물 재활용 소재 적용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수거 활동 적정지역에 대한 사전 탐색을 강화하고, 수거 활동에 드론 및 전기보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링

현대자동차는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페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내 10개 중·고등학교 및 2개 아동친화공간(RPTRA, Child Friendly Integrated Public Space)에서 협력 파트너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플라스틱페이(Plasticpay)와 함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페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굿즈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브카시(Bekasi) 지역에 폐기물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마을의 쓰레기를 줄이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순환경제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2022 주요 성과 자카르타 지역 내 주요 학교, 공공공간에 15개의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8,3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브카시 지역에 폐기물 재활용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는 2022년 서자바 지역 내 CSR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3년에는 플라스틱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수거 관련한 환경교육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현대자동차는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 친환경 숲을 조성하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강원도 홍천에 총 8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1만 6천m² 규모의 친환경 숲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 3백m² 규모의 자생정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홍천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 구상나무와 최근 개체수가 줄어가는 꿀벌의 먹잇감인 아까시나무, 산불방지 내화수종인 물푸레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브라질, 멕시코, 독일, 세르비아, 튀르키예, 체코에서도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북미에서는 임직원 자원봉사 연계 활동과 아이오닉 5 및 아이오닉 6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오닉 포레스트 브라질은 10만 그루를 식재함으로써 대서양림을 복원함과 동시에 상파울루 농업대학 협력 하에 브라질 공장 인근에서 열대우림 복원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체코는 베스키디 산맥의 초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씨앗과 묘목을 심고 희귀 나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약 2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파트너와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친환경 (Earth)

2022 주요 성과 강원도 홍천군과 전북 군산시 신시도의 아이오닉 포레스트 신규·확대 조성으로 총 3만 6천m² 지역에 1만 2천 그루의 숲이 생겨나 연간 약 85톤의 이산화탄소 및 250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6천여 명의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독일 등에서도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총 215,923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 북미, 브라질, 멕시코, 세르비아에 314,929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뉴욕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포레스트 북미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참여를 유도해 갈 것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모빌리티 (Mobility)

국내외 CSV 활동



모빌리티 활용 소외지역 지원

현대자동차는 중동 지역 내 도심-외곽지역 간 빈부격차에 따른 식자재 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를 활용한 푸드뱅크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UAE의 Ajman 도시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UAE 2개 도시(Ajman, Sharjah) 및 사우디아라비아 3개 도시(Riyadh, Jeddah, Dammam) 총 5개 도시에서 현지 푸드뱅크 및 대학교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에 영양키트를 포함한 식자재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 스타리아를 각 도시별 NGO에 기부하여 활발한 기부활동을 도왔습니다.

2022 주요 성과 스타리아 차량 4대를 활용해 각 지역 4개 대학교 및 지역 봉사단체와 연합하여 총 2,000박스의 식자재 패키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총 2,800박스의 식자재 패키지를 지원하고, NGO 활동에 필요한 마이티 차량 4대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착용로봇(X-ble MEX) 활용 재활 지원

현대자동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하반신 마비환자들의 재활 지원을 통해 이동약자들의 신체적 한계 극복 및 이동성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은 보행이 어려운 이동약자의 하지근육 재건 및 관절운동을 돕는 의료용 착용로봇 '엑스블 맥스(X-ble MEX)'를 개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보행 보조를 위한 동력원인 배터리 인증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서울아산병원, 국립재활원과 엑스블 맥스를 활용해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및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인류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착용로봇뿐 아니라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적극 접목하여 이동약자들의 이동 지원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서울아산병원과 국립재활원에 하반신 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착용로봇을 각 2대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가상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운전재활 지원

현대자동차는 2019년 2월,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가상현실 운전체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뮬레이터는 도심, 고속도로, 국도, 골목길 등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주행연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국립재활원, 2022년부터는 충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병원과 추가 협력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훈련용으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재활병원에도 시뮬레이터를 제공하여 재활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 주요 성과 충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과 새롭게 협약을 맺고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3년 상반기에 서울재활병원에 시뮬레이터 1대를 신규로 기증하여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H-스페셜 무브먼트

현대자동차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차량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을 지원하고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시각장애인 특화 전기차량을 충청북도 관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기증하였습니다. 기증한 차량은 점자 및 전용 음성안내 편의사양을 친환경 전기차량인 아이오닉 5에 적용한 모빌리티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습니다. 아이오닉 5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친환경 복지 차량이 충청북도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 주요 성과 시각장애인 특화 아이오닉 5 차량 3대를 충주시-제천시-보은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에 기증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 장애인 친환경 복지차량 운영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시각장애인 복지차량 운영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이오닉 5 전기차 보급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미래세대 (Hope)

국내외 CSV 활동

H-모빌리티 클래스

현대자동차는 2020년부터 국내 이공계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H-모빌리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미래 전략기술인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로봇틱스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년 신규 개설된 로봇틱스 과정은 심화교육 중 하나로 해커톤을 운영하여 교육생에게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고 실전 역량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화교육 수료 후 우수학습자로 선정된 교육생에게는 채용 혜택(서류전형 면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 주요 성과 2022년에는 로봇틱스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였고, 총 2,80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H-모빌리티 클래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3년에는 자율주행 과정에 SW(소프트웨어) 강의를 추가 개설하여 모빌리티 인재 양성과 더불어 SW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미래모빌리티학교

미래모빌리티학교는 2016년 교육부와 MOU 체결로 시작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래모빌리티학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론 학습과 실습, 체험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직업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모빌리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을 우선 선발하여 진행됩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학습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 주요 성과 2022년에는 350개교, 1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3년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APCEIU)과의 협업을 통해 아세안(ASEAN) 국가의 학생들에게 모빌리티 관련 진로체험학습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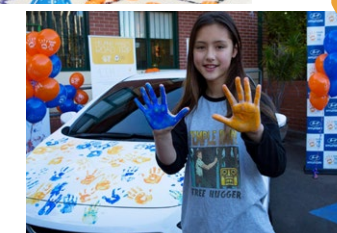


H.I.R.E.

H.I.R.E.는 Hyundai Initiative for Robotics Excellence의 약자로,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로봇틱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H.I.R.E.는 몽고메리 및 리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술 기반 산업이 요구하는 미래인재 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몽고메리 공교육 시스템과 협력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틱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H.I.R.E.는 학생들로 하여금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관련 과학원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팀워크, 리더십, 코딩 및 문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며, 일찍 로봇틱스를 접함으로써 로봇틱스 기반 산업으로의 진로를 꿈 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 주요 성과 2022년 1월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몽고메리 지역 중학교 10개교가 모두 참여하여 총 90명의 학생들이 로봇틱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8월에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몽고메리 지역의 총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총 17개의 팀이 출전한 H.I.R.E. 로봇틱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은 중부 앨라배마 지역의 교육 시스템과 협업하여 H.I.R.E.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Hyundai Hope on Wheels & Help for Kids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은 딜러와 함께 소아 종양학 연구를 지원하고 소아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Hope on Wheel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아이들이 암으로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1998년 시작되었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호주판매법인은 딜러와 함께 아동 자선단체에 재정 및 차량 지원을 제공하는 Help for Kid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차량 지원과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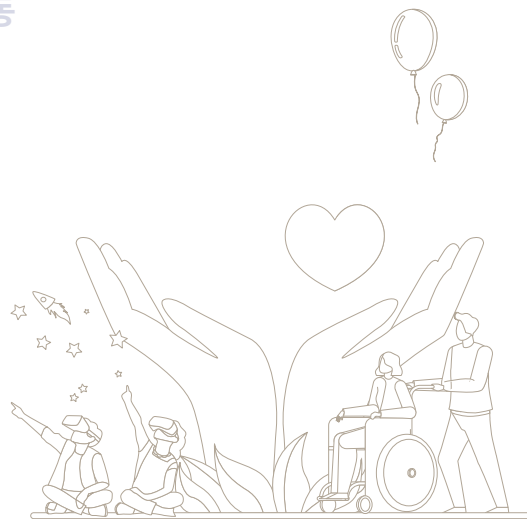
2022 주요 성과 Hope on Wheels 캠페인은 2022년 총 1,5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소아 종양 전문의 1,100명의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Help for Kids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22년 말까지 모금된 기부금은 총 1,100만 호주달러를 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Hope on Wheels에 참여하는 딜러 네트워크는 2023년부터 판매차량 한 대당 14달러씩 모금하던 것을 22달러로 증액하였고, Help for Kids에 참여하는 호주 딜러 네트워크는 2022년 8월, 판매차량 한 대당 7.5호주달러씩 모금하던 것을 10호주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기부 금액의 증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지역사회 (Community)

국내외 CSV 활동



임직원 자원봉사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사, 남양연구소, 울산공장에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발달권 및 참여권 증진을 위한 H-팝업트럭을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55명의 임직원들은 아이들이 VR 체험,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목공자동차 만들기 등의 창작공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022년 6월, 봉사활동을 대면활동으로 전환하고 지역아동센터 풍선아트 지도 봉사, 지적장애인 손발 마사지 봉사, 무료급식소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인 H-지역동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22 주요 성과 2022년 현대자동차 봉사활동은 15,016시간에 걸쳐 총 627회 진행되었고 5,592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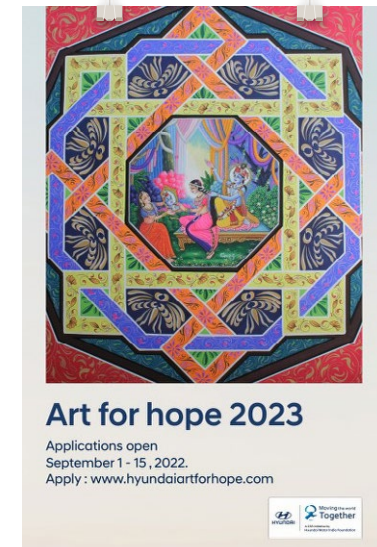


Art for Hope



Art for Hope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진행하는 예술 부흥 프로그램으로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고 창작활동을 중단한 예술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 여성, 지역 예술가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희망, 연대, 감사'를 주제로 지역사회 예술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인도의 17개 주에 걸쳐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35개팀의 예술가에게 총 400만 루피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도의 예술가 지원 공모 사업으로 발전하여, 인도 전통 예술, 공예 및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출신 청년 예술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 주요 성과 2022년 말 기준, 총 60개 팀(120명 예술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도의 5가지 전통예술과 4개 아카이브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전시 관람객 3,700명 이상을 동원하였습니다. 더불어 12개의 환경 및 사회 이슈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인식 제고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고,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관람객을 위한 인터랙티브 워크숍 및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한 것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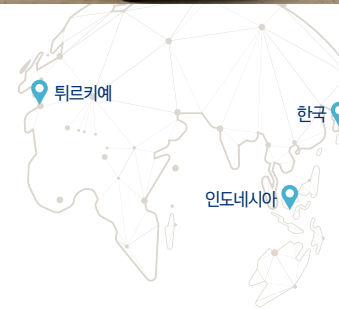


대한양궁협회



현대자동차는 1985년부터 대한양궁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각종 포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수준 높은 역량을 뒷받침하고 기록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당사 연구소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불량 화살을 선별하는 슈팅머신을 개발하고, 부품 이상을 확인하는 정밀 분석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대표적인 양궁 스포츠 대회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는 대한양궁협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양궁 협회와도 2025년까지 스폰서십을 맺고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궁 저변 확대와 유망주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양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난재해 구호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피해, 2022년 8월 중부 집중호우 피해, 2023년 4월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의 경우,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와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재난재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및 법인 인근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하거나 각 사업장 재량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2 주요 성과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약 23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고, 2022년 8월 중부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2023년 4월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각각 약 9억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20억 루피아를 전달하였고,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매몰 현장 구조에 필요한 인명 구호장비 및 이재민 생필품 등 50만 유로 규모의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유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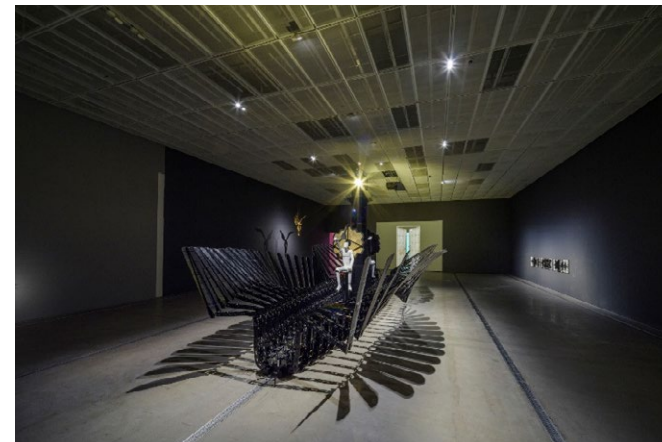
글로벌 문화 예술 파트너십

현대자동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유수의 예술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한국 미술의 지평 확장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2014년부터 'MMCA 현대차 시리즈'를 통해 매년 국내 중진 작가 1인의 대규모 개인전 및 연계 세미나, 출판 활동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 - 작은 방주>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전시 기간 중 비평가 및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및 음악가와의 협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그들이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선보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프로젝트 해시태그'를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팀을 선발, 창작 지원금 3,000만 원과 레지던시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2022년에는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2>를 통해 국내 언더그라운드 파티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와 가상 생태계의 문화적, 사회적 이슈를 젊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쇼케이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MMCA Hyundai Motor Series 2022: Choe U-Ram — Little Ark, Little Ark, 2022, recycled cardboard boxes, metallic material, machinery, electronic device (CPU board, motor), 210 x 230 x 1272cm. Image provided by MMCA

테이트 미술관(Tate)

테이트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테이트 모던 중심부에 위치한 전시장 터바인 홀에서 전시 프로젝트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자연 재료와 전통 직조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텍스타일 조형 예술 및 대형 설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예술가이자 시인 세실리아 비쿠냐가 현대 커미션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현대 커미션: 세실리아 비쿠냐: Brain Forest Quipu> 전시는 터바인 홀 양 끝에 설치한 길이 27m의 조형물과 오디오 및 디지털 작품으로 구성되어 산림 파괴와 기후변화에 따른 토착인 피해에 대한 일종의 애도를 표현했으며, 작가가 주목한 다양한 토착 역사와 문화, 환경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또한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Hyundai Tate Research Centre: Transnational)'을 통해 전 지구적 관점의 문화-예술-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과 세미나 및 워크숍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와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yundai Commission: Cecilia Vicuña: Brain Forest Quipu © Cecilia Vicuña, Installation View at Tate Modern 2022. Photo © Tate (Ben Fisher)

LA 카운티 미술관(LACMA)

현대자동차와 LA 카운티 미술관이 2015년부터 이어 온 '더 현대 프로젝트(The Hyundai Project at LACMA)'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지지하는 전시 및 Lab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 미술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파트너십 일환으로 <사이의 공간: 한국 미술의 근대(The Space Between: The Modern in Korean Art)>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근대 시대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작품 약 150여 점을 선보인 기획 전시로, 당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간의 연구 및 기획을 바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작가들이 재해석한 근대 예술 작품과 당대 활동하던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한국 근대 미술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또한 파트너십의 주요 부문인 'Art + Technology' 전시와 'Art + Technology Lab' 후원을 통해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진취적인 전시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rt + Technology Lab 선정 작가들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을 접목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현대자동차, 구글, 스페이스엑스, 스탬뱃 등의 기술 자문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The Space Between: The Modern in Korean Art, Installation photograph,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Sep 11, 2022-Feb 19, 2023. Photo © Museum Associates/LACMA